

12월
문화 + 0
시경
2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 《Grain Series with Scratches(Where Tree Gr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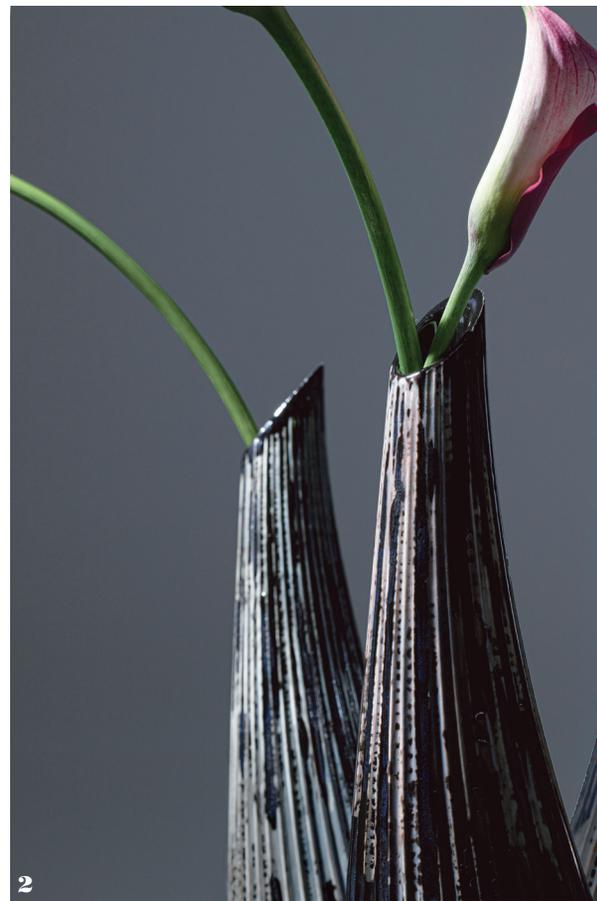
도자 | 120×120×280mm | 2021

2 《Grain Series with Scratches(Stems)》

도자 | 90×90×240mm | 2021

3 《Grain Series with Scratches(Spectrum Objet)》

도자 | 105×105×250mm | 2021





이달의 표지 작가



작가 박채원은 국민대학교 도자공예학과를 졸업하고, 도자를 기반으로 공예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개인전 <심층으로부터의 생성> (Gallery 1, 2021)을 개최했고, 단체전 <반려공예>(인사동 KOTE, 2021) <2021 공예트렌드페이어>(COEX, 2021) 등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카데미 12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고스란히 모은 'Input-Output'을 무언가 담는 역할을 하는 기궤의 형태에 투영해 나의 정체성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크게는 외부로부터 시각적 영감을 받고Input, 내면의 자아를 표출한다Output. 외부 요소를 체화해Input 시각적 형태의 실루엣을 만드는 '모양 만들기' 이후 내면에서 표출된 자아Output를 장식하는 '채움' 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한다.

자아 표현을 대변하는 단어는 '중첩'이다. 겹면에 한 겹 씩우는 유약은 외면, 그 안에 무수히 칠하는 색의 면은 내면을 형상화한다. 유광과 무광, 무채색과 유채색의 대비가 '정돈과 날것'이 주는 느낌의 차이를 만든다. 감상자가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이미지로 작가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중첩의 의도를 담았다.

안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내면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을 겹겹이 쌓는 수행적 행위를 거친다. 이는 항상 여러 면을 품은 입체적 인물로서 자아 표현을 색으로 치환하며 시작됐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여러 생각을 색으로 쌓아나가는 반복적 과정을 통해 두 번째 중첩의 의미를 담았다. 겹겹이 쌓이는 내면의 색들은 점점 더 층이 쌓일수록 채도가 낮은 색이 된다. 다시 말해 너무 많은 색이 쌓이면 우리는 안의 색을 정확히 볼 수 없다. 탁한 빛을 띠게 되는데, 나의 내면은 그 '탁한 빛'에 주목한다. 무언가가 쌓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겉모습으로 지난 과정을 쉽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분명히 담긴 고뇌와 과정, 즉 '탁하지만 빛나는 것들의 가치'를 생각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 표현에서 시작한 작업이 세상으로 범주를 넓혀, 대중과 공감하길 희망한다.

Contents

2021 12 Vol. 178



연극 <천만 개의 도시>(세종M씨어터, 2021)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오니트(주)(이아림,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3 팩스 02-6008-7347
누리집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박채원

테마 토크

견뎌 온 2년, 함께 갈 2022년

06 리포트 1 KOPIS 통계로 본 공연 시장

08 리포트 2 2021년 미술계 돌아보기

10 앙케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기관 운영

14 인터뷰 배우 성수연

16 에세이 문화 향유자의 생각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서울문화재단 신임 이사장 박상원

24 작가의 방 박기쁨 디자이너, 서연수 안무가

26 서울 찰나

28 진실 혹은 대답

2021 공공디자인 토론회 '공공가치를 디자인하다'

이슈 & 토픽

34 쟁점 동료평가제도 시시비비

36 화제 댄스필름의 융성기



공간, 공감

- 38 공간 편지가게 '글월'
- 40 공감 1 뮤지컬 <작은 아씨들>과 <프랑켄슈타인>
- 42 공감 2 전시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과 <김환기, 그·리·다·D·R·A·W>

SOUL OF SEOUL

- 44 서울 산책 사람들이 사는 곳 성산동
- 46 정지우의 설(說) 문화 향유자에게 2021년이란
- 48 서울 건축 읽기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 아파트 '아케이드'가 빚어내는 도시경관
- 50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임대형 감독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WEBZINE+

- 54 웹진 [비유] 쓰기의 매혹과 괴로움
- 56 웹진 [연극in] 극단 Y <제1강: 거절하는 방법>
- 58 웹진 [춤:in] 김형민 안무가 & 벤야민 셰일리커 조명디자이너
- 60 12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결년공 2년, 함께 2022년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이예승 작가의 <정중동, 동중동>(2021)

2021 YEAR IN REVIEW

갑작스레 닥친 재앙과도 같던 지난 2년. 그럼에도 마스크를 쓰고 연습해 공연을 올리고, 작품을 통해 깨달음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 예술가들이 있었다. 관객들은 어느새 일행과도 거리를 두고 있고,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고 전시를 관람하는 데 익숙해졌다. 2021년을 보내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세상의 변화를 체감한 문화예술 기관 근무자, 코로나 시국에도 꾸준히 연극 무대에 오른 배우, 방역 수칙을 지키며 공연장, 전시장을 찾은 관객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함께 견디면서 변하고 강해진 이들 모두가 2022년에도 '문화예술의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국악 플라이 퍼포먼스 <하루>(세종M씨어터, 2021)



2022 YEAR IN PREVIEW

〈리그오브 레전드라이브 디오케스트라〉 지휘자 진솔



살바도르 달리
〈아프리카의 인상(Impressions d'Afrique)〉
(캔버스에 유채, 91.5×117.5cm, 1938)



2021 예술의전당 청년작가 특별전 〈마스커레이드〉 중 장연호 '빈 시선' (HD 단채널 비디오, 5분 10초, 2018)

2021년, 코로나19와 함께한 공연

REPOR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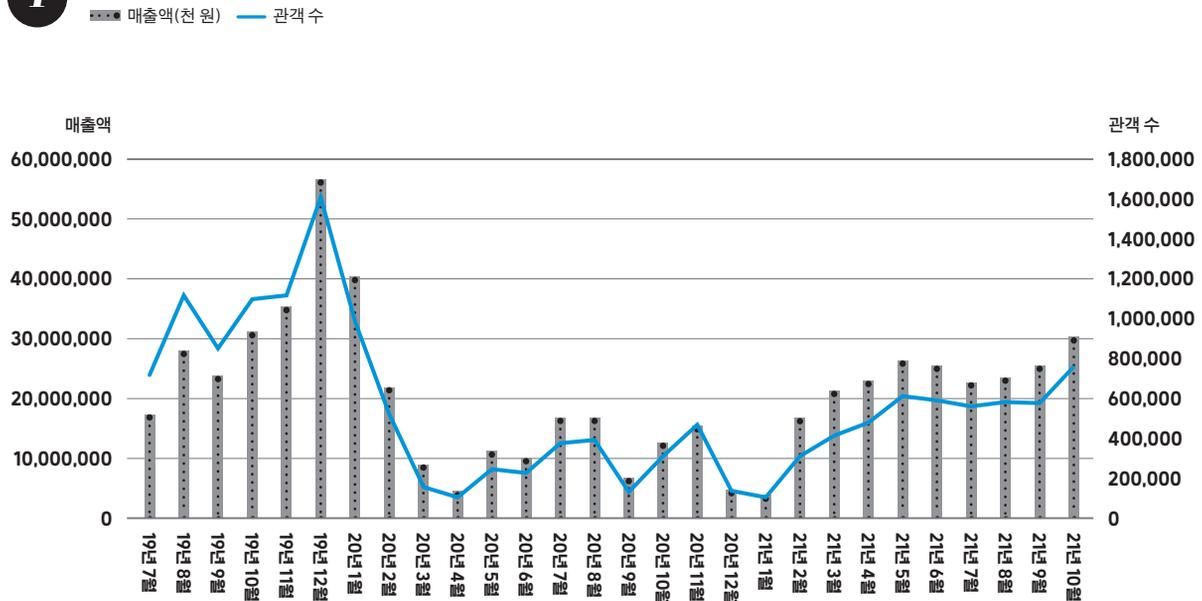
KOPIS 통계로 본 공연 시장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근 2년이다.
 2020년 우리의 일상을 한꺼번에 바꿔버린
 코로나19는 대면을 중심으로 이뤄진
 공연 시장에도 막대한 피해를 줬다.
 티켓 판매처인 인터파크의 2020년 판매액은
 2019년의 25% 수준인 1천 300억 원이었다.
 팬데믹 2년 차에 접어든 2021년의 공연 시장은
 어떨까. 아직 2021년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지만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의 통계를 통해
 2021년 공연 시장을 살펴봤다.

예년에 비해 떨어진 공연 매출액과 관객 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하반기 한 달 공연 평균 매출액은 약 320억 원, 관객은 110만 명 정도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공연 매출액은 급격히 떨어졌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퍼진 3월 이후 2020년은 월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긴 달이 없었다. 2021년에 동반자 간 띄어 앉기(2월 2일부터 시행)가 자리를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3월 이후 지금까지 매달 공연 매출액이 200억 원을 넘겼다. 2021년 10월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월 공연 매출액이 300억 원대를 회복했다. 2021년 월 평균 매출액은 약 220억 원으로 코로나 전 상황의 69%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관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공연장 방역 지침이 동반자 간 띄어 앉기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100% 가동되지는 못하니 관객 수 회복이 더디다. 1번 그래프에도 드러나듯이 관객 수는 2020년에 비하면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2019년의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월평균 관객 수는 약 110만 명이었던 반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관객 수는 약 50만 명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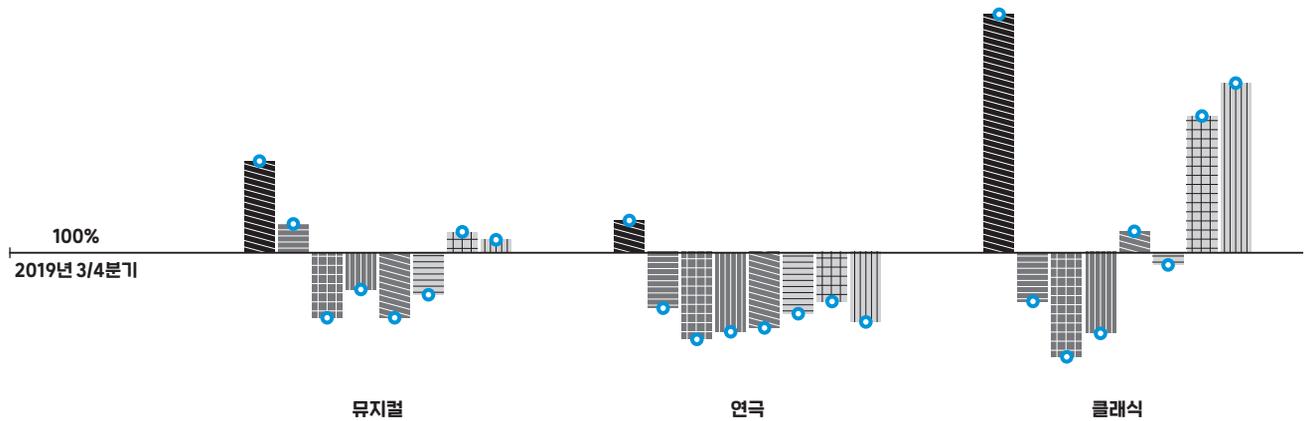
1 2019년 7월~2021년 10월 매출액과 관객 수의 추이 변화





2 2019 3/4분기 기준으로 2021년 3/4분기까지 뮤지컬·연극·클래식 분기별 매출액 회복률

■ 2019년 4/4분기 ■ 2020년 1/4분기 ■ 2020년 2/4분기 ■ 2020년 3/4분기 ■ 2020년 4/4분기
 ■ 2021년 1/4분기 ■ 2021년 2/4분기 ■ 2021년 3/4분기



제작 건수는 매출액이나 관객 수에 비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1년 10월 공연 건수는 1,409건이었다. 2019년 10월 1,511건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다. 위드 코로나의 희망으로 제작사가 작품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연 건수는 관객 수나 매출액에 비해 가장 빠르게 예년의 상황으로 회복하고 있다.

장르별 매출액 회복세

2021년 공연 시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르마다 회복세는 큰 차이가 난다.

2번 그래프는 2019년 3/4분기부터 2021년 3/4분기까지 뮤지컬·연극·클래식음악 공연 매출액을 비교한 표이다. 2019년 3/4분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보다 크고 작은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즉 기준선 위로 형성된 그래프는 2019년 3/4분기보다 매출액이 오른 것이고, 아래로 형성된 시기는 떨어진 것이다. 모든 장르에서 핫한 연말 공연 시즌인 2019년 4/4분기가 가장 높은 매출액을 나타냈다. 팬데믹 시대로 접어드는 2020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기준점보다 낮은 그래프를 보이는데 이는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뮤지컬 시장을 보면 본격적인 코로나 정국으로 접어든 2020년 2/4분기부터 매출액이 떨어졌다가, 올해 2/4분기, 3/4분기에는

기준점인 2019년 3/4분기보다 매출액이 높았다. 뮤지컬 매출액은 2021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예전 시장으로 회복하고 있다. 반면 연극 시장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2019년 3/4분기 매출액을 넘기지 못했다.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오페라·국악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연극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뮤지컬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연 장르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는 50% 이상 회복해야 한다.

클래식 공연 매출액은 2021년 2/4분기와 3/4분기에 이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각각 2.12배, 2.4배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형 공연장 객석 운영 기준이 완화되면서 <팬텀싱어> 콘서트가 대중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1년 9월까지 올라간 <팬텀싱어> 콘서트가 클래식·오페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를 넘어섰다.

장르마다 차이는 있지만 2021년 공연계는 회복률이 매우 높았다. 2022년에는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라이온 킹>을 비롯해 브로드웨이 히트 뮤지컬 <물랑루즈> <마틸다> 등 대형 뮤지컬의 라인업이 막강해서 올해보다는 좀 더 진전된 매출액과 관객 수를 보일 것이다.

코로나 위에서 서핑하듯 즐기는 예술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앙을 맞닥뜨린 지난 2020년이 불가항력적 쓰나미에 휩쓸린 듯 어지럽고 힘든 시기였다면, 2021년 미술계는 그 지진해일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조금씩 정신을 가다듬어 어느새 넘실대는 파도를 탈 줄 아는 '위드 코로나'로 전이하는 과정이었다.

예술로 다가온 디지털과 뉴미디어

미술 전시에서 파도타기를 즐기게 만든 일등 공신은 온라인과 뉴미디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관람 정책에 따라 필수가 된 온라인 사전 예약 방식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고, 인터넷을 통해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한 온라인 뷰잉룸이 해외 교류 전시를 대체했다. 덕분에 상용화 초기 단계이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대체 불가능 토큰을 뜻하는 NFT(Non-Fungible Token)와 현실에서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는 순식간에 일상 용어가 됐다. 대형 전광판에 불과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티움의 외벽 미디어는 다양한 작가의 최신작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



포엑스 아티움 외벽미디어 미디어아트 특성을 살려, 도시가 더욱 화려한 분위기를 담아냈다. 전시 작품은 이예송 작가의 (정중동, 동중동)이다.

께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됐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AR기법을 적용한 이예승 작가의 <정중동, 동중동>은 도심 풍경에 색다른 변화를 선물했다. 코엑스 인근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대형 작품을 스마트폰 같은 손안의 미디어로 옮겨 담아 감상할 수도 있었다. 이곳은 5월 한 달간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신작 <해돋이>를 최초로 선보이며, 서울과 런던·뉴욕·로스앤젤레스·도쿄 등을 연결하는 글로벌 예술 플랫폼이 되는 등 삭막한 도시를 연중 밝히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격년제 국제 미술제인 비엔날레에서도 코로나 이후 달라진 풍경이 목격됐다. 2021년에 열린 비엔날레는 미디어아트·사진·디자인·공예·도자 등 장르별 특화가 두드러지는데 주제 면에서는 '코로나 이후'라는 세계적 화두 아래 예술이 줄 수 있는 치유와 새로운 시작에 관해 이야기했다. 대구사진비엔날레·광주디자인비엔날레·청주공예비엔날레·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전남수목비엔날레를 비롯해 강원국제트리엔날레가 열렸다. 출품작들은 팬데믹을 초래한 인간의 오만을 지적하면서도 고립과 격리의 기간을 보내며 얻은 깨달음, 공존의 가치와 새로운 미래 등을 속삭였다. 물론 여기서도 '엔택트'(비대면) 관람객을 위한 '온택트'(온라인 이용 가능) 콘텐츠는 필수 요소였다. 특히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대중교통 내 영상매체, 미디어 캔버스 등 서울시 100여 곳에서 비엔날레 상영작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유통망' 프로젝트를 펼쳤다.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예술의 향유 방식을 경험하고, 예술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공예·디자인 창작 레지던시인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들이 4~10월까지 7개월간 릴레이 전시로 펼쳐 보인 <신당 파트너 프로젝트: 새로운 일상>은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을 경험하게 한 대표적 전시였다. 서울 중구 마장로 서울중앙시장 지하에 있는 SASS갤러리를 찾아갔을 때, 사람은 없었다. 관객이 없는 게 아니라 안내 직원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하다. 무인 운영 방식의 갤러리에 마련된 작품 설명서를 살펴보면 더욱 작품에 집중해 빠져들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예술로 치유한다는 내용으로 공모를 통과한 7팀의 작가들이 매달 새로운 기획 전시와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이들의 신작은 전시장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공개됐다. 젊은 작가들은 팬데믹 시대에 새롭게 전개될 여가와 여행 문화를 온라인 공간에서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전시. 관객이 QR코드를 이용해 전시에 참여한다.

다루는가 하면 QR코드를 통해 작가가 재해석한 방역 마스크를 AR필터로 착용해 보는 것도 가능하게 했고, 향·소리·식물 등을 통해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치유 시간도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코리아나미술관이 기획한 국제 미술전 <프로필을 입력하세요>는 디지털 공간에서 생성된 '또 다른 자아' 혹은 '부캐'를 이야기하며 메타버스 상용화의 시대가 일상으로 다가왔음을 이야기했다.

생태와 친환경에도 눈은 미술관

전시관 피크닉의 기획전 <정원만들기>는 종종 잊고 지내는 흙·망, 소리 없이 피고 지는 풀·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음을 정조준했다.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각각했고,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데 반려 식물과 플랜테리어 Planterio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길고 느릿하게 전시를 이어가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며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장소로서 정원의 의미를 재조명"해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다. 부산현대미술관이 기획한 <지속 가능한 미술관: 미술과 환경>은 항공을 통한 작품 운송, 전시 기간에만 사용하고 버려지는 가벽과 포장 폐기물 등 그간 미술관이 쉬쉬했던 환경 파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투박한 나무 판자, 시트지 대신 손으로 쓴 안내 글 등 거칠지만 환경친화적인 전시에 도전했다.

재앙이었던 코로나가 예술 향유 방식의 확장, 미술이 기율여야 할 또 다른 관심사의 발견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1 <The thin() line>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21. 8. 14~15)

사진 컬래보. 전보 ©ChadPark

2 세종문화회관 산하 예술단
협업 공연. 'ART9-세종' 뮤지컬
(조선 삼총사)



ENQUÊTE

송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본부장, 예술극장장의 대답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예술가·단체에 보조금·교육·아카이빙·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 예술계를 지원하고 창작 매개 향유의 유기적인 선순환을 꾀함으로써, 예술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관이다. 문학·전시·공연 관련 지원사업 등을 총괄하는 예술창작본부장으로서 2020년과 2021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술 현장의 극심한 피해를 온통 느끼고 예술의 역할과 예술위의 소명을 다시 한 번 뼈아프게 되새겨 보기도 한다. 코로나19는 문화예술계에 아이러니를 던졌다. 하나는 예술 활동이 연기·축소·취소되면서 예술인·단체의 '생존 문제'가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예술이 가진 힘, 즉 본연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술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술위는 예술인·단체가 버틸 수 있도록 수월성보다는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고, 빠른 지원과 사업 수행 시 유연성을 뒤 대쳐토록 하며,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예술 활동이 빨리 회복되도록 하는(예: 전시·공연관람료 지원사업 추진) 데에 지원 방향을 뒀다.

① 정보 지원 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예술나무로 다시, 봄' 캠페인 전개 ③ 긴급 보조금이나 민간 기부금 모금을 통한 재정 지원 ④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 등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대처 시기와 방식의 적정성, 운용 시스템의 효율성과 예산의 규모 등 효율·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복기하면서 되새기고 있다.

12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함과 더불어 지난 두 해 코로나19 대처 경험도 잘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술위는 12월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진·중소기업인·소상공인·문화예술인·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겪은 애환과 극복 사례를 예술가의 창의적 시선으로 아카이빙하고, 전시와 같은 방식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모티프로 새로운 창·제작을 하는 '코로나19, 예술로 기억'과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찾아가는 공연 및 방송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치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그간 경험을 반추해 향후 감염병 뉴 노멀을 대비할 필요도 있다. '지원'과 '보상'을 구분한 운영, 상당 시일이 걸리는 국회나 지방의회 관련 소정 절차 전 일정 한도 예산 긴급 사용 등 관련 정책이나 법·제도 정비를 건의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초기 보완재에서 이제는 대체재로 나아가는 온라인·메타버스·NFT 등 제4차 산업형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모색·확장하고 있다.

국립극장·세종문화회관·아르코대극문예술극장·예술의전당 내 곳곳에 물었다. 첫 번째 질문, '코로나 시대에 기관을 운영한 소회가 궁금하다. 두 번째 질문, '우도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2021년을 돌아보고 2022년을 준비하는 문화예술계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다.'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기관 운영



이향순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의 대답

11 현상성과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예술을 선보이는 공연장에 코로나는 너무 큰 시련이었다. 세종문화회관은 '안전한 방역'과 '공연의 지속'을 모두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막중했다. 거리두기 기준 변화에 따른 취소 수수료 면제와 전략적 좌석 운영을 유지했고,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자 문진 시스템'과 무인 검표 '스피드 게이트' 개발, '자동 거리두기 예매 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휴관으로 취소 위기에 있던 공연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중계하는 '힘내라 콘서트(힘콘)'를 선보이고, 취소가 빈번한 상황에 맞춰 '긴급 공실 대관' 제도를 신설하며 공연을 지속했다. 그중 2020년 12월에 휴관으로 인해 관객 없는 텅 빈 연말 공연장을 경험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허탈하고 아쉬웠다.

12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기보다는 함께 삶을 지속하는 개방적이고 진취적 자세로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 우선,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공연장의 위드 코로나 대응 방법은 백신 패스를 강화하는 전략이라 생각한다. 백신 패스를 장려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이에 맞춰 거리두기 좌석 완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은 무엇보다 '예술을 대면할 때 맞는 감동'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비대면에 익숙해진 관객에게 대면 예술이 갖는 차별화된 '다가서기 프로그램'을 선보여 다시 공연장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대면 예술의 매력을 알릴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계는 코로나 시대의 경험을 계기로 영상화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메타버스 공연, 웹뮤지컬, 쇼트폼 공연, 관객 참여형 전시, 체험형 교육 강좌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놓아야 할 것이라 한다. 특히 온라인 공연은 기존 관객 외에 한 번도 공연을 보지 않던 관객층을 유입할 수 있는 신규 소비자 확충의 기회이기도 하다.

기존의 기준이 허물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 열린 마음과 자세로 세상과 마주해, 예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터를 만드는 것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Q1

코로나 시대에 기관을 운영한 소회가 궁금하다.

Q2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선재규

국립극장 공연기획부장의 대답

❶ 암흑의 터널을 지나자 또 다른 터널이 다가오는 느낌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고 2년여의 세월이 흘렀건만 코로나19 확산 양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외출 타는 심정으로 공연 연습을 진행하고, 객석 한 칸 띄우기 방역 지침을 지키며,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하루하루가 반복됐다.

1950년 6·25전쟁 피난 중에도 국립극장 문은 닫히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 소중한 전통은 이어진다. 2020년에 일부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되거나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됐지만 극장 문을 폐쇄한 적은 없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출연 단원이 코로나 확진 진단을 받은 한 편의 공연을 제외하고는 49편을 무대에 올려 109회 공연에 총 3만여 명의 관객(유료 82%)이 관람했다. 연말까지 남은 15편의 공연도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2021년 국립극장에는 큰 경사가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48년 된 해오름극장을 4년여간의 전면 개보수 공사를 거쳐 9월 1일 개관했다. 자연음향으로 관현악 공연이 가능하고, 물입형 입체음향과의 조화를 통해 참극·오페라·무용 등 어떤 장르도 부족함 없이 공연할 수 있게 됐다. 전 좌석의 시각선을 개선하고, 200여 명을 동시 수용하는 분장실을 완비해 관객과 출연자 모두에게 편안한 공연 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썼다.

지난 2년은 반쪽자연을 통해 만들어진 물질문명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돌아오는지 성찰하는 시간이었다. 국립극장 역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되돌아봤다. 장애 예술가들과 비장애 예술가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게 됐고, 시간이나 거리상 제약으로 극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공연 실황을 고품질 영상으로 제작해 영화관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을 운영했다.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느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나와 모두의 국립극장’이 돼야 한다는 큰 변화가 시작됐다.

❷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면 공연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중 2021년에 시범 운영한 공연 영상화 사업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공연 영상의 품질 개선과 공급망 확대, 유료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 특히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연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그러나 국립극장의 기본 임무는 무대 위의 예술가와 객석의 관객이 함께하는 대면 공연이라 생각한다. 무대는 스튜디오가 아니다. 온라인 공연과 같은 비대면 공연은 대면 공연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공연예술의 특성인 현장성을 지키고,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객의 심성을 보듬고 자연을 경외하는 공연예술의 순기능이 물질문명의 폐해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Q1

코로나 시대에 기관을 운영한 소회가 궁금하다.

Q2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 3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기원한 무대. 국립무용단 <제의>
- 4 <청년미술상점>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에서 매주 2명의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박거일 예술의전당 시각예술부장의 대답

11 2020년 1월 27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했을 때 코로나19 위기는 일시적이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코로나가 계속된다. 2020년 한 해만 전시 관객 수는 2019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 절반에 가까운 40여 건의 전시가 취소됐다.

예술의전당도 직격탄을 맞았다. 1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직원 급여를 줬다. 더 심각한 곳은 전시기획사다. 많은 전시기획사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대다수 국립 미술관은 국고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가 덜했지만, 민간 전시기획사는 파산 지경에 내몰렸다. 미술관 관리자 입장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전시기획사를 다그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관객이 찾지 않는 미술관의 적막은 쓸쓸하고 가슴 아팠다. 예술의전당은 <청년미술상점>이나 <내일의 예술> <나무, 그림이 되다> 전시를 기획해 관객을 기다렸지만, 확진자 수에 따라 일회일비했다. 소회라고 하면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인데, 사실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는 안개 속에 있다.

12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술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작품 판매가 때 아닌 호황이며, 디지털 원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춰 '대체 불가능 토큰NFT'도 성행한다. 혹자는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한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이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싶어 한다. 랜선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진짜 해외여행을 꿈꾸듯, 미술관에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문화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에 의해 변화된 미술 시장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면서도 전통적 미술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2021년 연말부터 시작되는 전시 <초현실주의 거장들>이나 <모두의 그림책>과 같이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전시부터 어린이와 함께하는 전시까지 다양한 전시가 관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첨단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내일의 예술> 시즌2도 기획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영상으로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미술관의 NFT 활용'에 관한 기초 연구도 진행한다.

또, 예술의전당은 청년작가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 2020년 시작된 <청년미술상점>이나 <청년작가 특별전>을 비롯해서 '청년작가 전시제작 지원'과 같이 기획·전시·유통 전반에서 예술의전당은 청년과 함께할 것이다.

배우 성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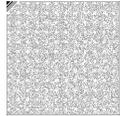


그럼에도, 연극을 하다

성수연은 자신을 배우이자 창작자라고 소개했다. 어릴 적에는 책만 보면 물 마시듯 허겁지겁 읽기 바빴고, 록 음악을 좋아해 고등학교 밴드부를 찾았지만 밴드부는 없어서 대신 연극부에 들어갔다. 2008년 데뷔 후 꾸준히 활동하며 코로나 창궐 이후에도 다행히 예정된 공연을 해온 그에게 코로나와 함께한 2021년에 대해 물었다.

🕒 코로나와 함께한 2021년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연습이나 공연할 때 해야 될 것들이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어떤 팀에서는 모두의 동의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유했어요. 연습실 안에서 확진자 혹은 격리 대상자가 생겼을 때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어요. 일이 닳았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연출부가 여러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죠. 그리고 연습 과정에서 마스크 벗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거죠. 본공연에서는 마스크를 벗잖아요. 상대 배우가 정말 낯설었어요. 상대 배우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직접 본 일이 적으니까 어머니, 저 사람이 저렇게 생겼는지, 싶더라고요. 안전에 민감하고 꼼꼼하게 대비한 팀에서는 연습 중간에 마스크를 벗은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고, 밥도 거리를 두고 따로 먹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낯설게 느낀 경험이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연기 하니까 얼굴 근육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힘을 빼고 있던 거죠. 리허설하다가 대사가 없는 신에서 제가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속에서.



❶ **현재 웹진 [연극in]에서 동료 배우를 만나 여러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꼭 웹진에서가 아니라라도 코로나를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나요?**

관객님들이 극장에 공연을 보러 오는 것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무게감 있게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이 밀집한 공간이니 정말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객은 극장에 오지 않는 선택지를 고르기 쉬울 수 있잖아요. 집 밖 공간에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느껴야 하는 불안감과 긴장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이 모이는 극장으로 오시잖아요. 그것이 정말 감사한 일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아니, 감사하다는 말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를, 창작자를 도와주러 방문하기보다는 연극을 보러 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극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님들 덕분에 연극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요. '현장에서 벗어지는 예술'이라며 글자로만 생각한 것에 가치가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연극이 대면예술이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찾아내서 말로 정리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 극장에 방문하고 우리가 공연하는 일, 그게 신기해요. 소위 말하는 연극의 3요소 중 하나가 관객이잖아요. 연극의 전제인데,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개념의 가치와 무게를 요즘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❷ **최근 온라인 공연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관객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몇 차례 봤는데요. 연극을 영상으로 본다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 같아요. 영화나 영상물도 아니고 연극도 아닌 그것이 결합한 새로운 장르 같고, 연극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얼마나 담아내고 편집하느냐, 그건 기술 문제잖아요. 기술과 함께 가야만 하는 장르로 보여요.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장르는 장르로서 즐기는 문화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죠. 개인적 경험으로는 외국 공연이나 직접 가서 보기 어려운 공연을 질 높은 영상으로 볼 수 있어 좋은 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경험은 대면 극장에서 무언가를 감각한 경험과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❸ **지금 시기에 연기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 최근에 비인간 존재를 연기할 일이 많았어요. 코로나 이슈와도 관련해 환경을 많이 언급하잖아요. 환경문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인간이 이제까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는 동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식물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인간 입장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연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옳은가, 그리고 얼마만큼 유효한가, 그렇다고 계속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인간 아닌 존재에 이입해서 연기할 자격이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 방식으로 비인간을 계속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이 인간성 이외의 다른 것을 어디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 관심이 생겼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인간에 대해 다시 무언가를 감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❹ **지금은 어떤 연극을 연습하고 있나요?**

지금은 <로테르담>을 연습하고 있고요. 2019년 12월에 한 공연인데 이번 12월에 재공연해요. 시기를 보니 딱 코로나 발생 직전에 올라간 공연이었네요. 그때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객석은 뻑뻑했죠. 그랬는데 지금 저희는 연습 중에 마스크를 쓰고, 아마 객석도 거리두기로 운영하겠죠. 이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는 공연이 되겠네요.

아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모로 깨닫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해, 흔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성수연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했다. 연극 <한꺼번에 두 주인을>(2012) <몇 가지 방식의 대화들>(2014) <비포 애프터>(2015) <액트리스 원: 국민 로봇배우 1호>(2019) <로드킬 인 더 씨어터>(2021) 등에 참여했으며, 제8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신인연기상(2015), 제52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자상(2016),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2019)을 수상했다.

우리는 즐길 것이다 늘 그랬듯이

문화 향유자의 생각

The show
must
go on!

김규완
고등학교 교사의
2021년 공연 생각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몰아넣은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고립돼 지쳐가는 요즘이다. 2021년 객석에서 바라본 공연예술계 풍경과 관련된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본다.

우선 떠오르는 가장 큰 변화는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 상황에서 늘어난 온라인 공연의 확대이다. 팬데믹 와중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각자의 가정에서 평소 보고 싶던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됐는데, 이는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공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공들인 공연을 사장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나마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을 텐데, 몇 작품을 보려고 시도한 관객 입장에서는, 공연은 역시 현장에서 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

아울러 어수선한 와중에 사라진 몇몇 행사와 축제가 떠오른다. 그중 2016년부터 5년간 이어지던 소극장 축제 '권리장전'이 사라진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다. 우리가 살아

대안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

조수빈
서울문화재단
시민기자의
2021년 전시 생각

때는 2020년 3월, 교환학생 신분으로 베를린에 있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방 정리로 폭풍 같은 일주일을 보낸 후 한껏 기대에 부푼 채 슈프레섬의 북쪽을 일컫는 '박물관섬 Museumsinsel'으로 향한 날이다. 예고도 없이 모든 박물관의 문이 닫혀 있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폐쇄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그동안 예술계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지난 2년을 반추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씩씩하지만, 마냥 안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다. 적응하기 위해서 시작된, 지금껏 가능했지만 실행하지 않던 일들은 생활 양상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있다. 이제 온라인 공간은 질병을 피하기 위한 대안적 공간을 넘어 적극적인 실험 공간이 됐다. 이는 사람은 알겠지만,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예술 작품도 등장했고, 아예 인스타그램 계정에 갤러리를 만든 사례도 있다. 그만큼 예술의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해졌다.



고등학교 교사와 서울문화재단 시민기자에게 코로나가 여전한 2021년에 어떻게 문화를 즐겼느냐고 물었다. 한 사람은 현장의 제맛을 확인했고, 한 사람은 온라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봤다고 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문화를 즐기고 있다.

ESSAY



2020 권리장전 페스티벌 포스터

가는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주제를 여러 극단의 공연을 통해 생각할 좋은 기회였고, 특히 공연예술계가 젊은 세대에게 말을 걸고 생각을 나누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흔하지 않은 장이었는데 말이다. 자세한 연극계 사정은 잘 모르지만 올해에는 열리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컸다. 재정이 문제라면 뭔가 공공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내년에는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

단 몇 초면 2시간 분량의 영화 한 편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이 편리한 디지털 세상에서 공연예술은 갈수록 더 아날로그적이고 원시적 장르가 돼가는 듯하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가 공연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시련으로 단련된 공연예술계가 내년에는 더 크게 도약하길 기원한다.

The show must go on!

관객 입장에서 솔직히 털어놓자면, 초기의 이런 시도는 어딘가 어설프다. 처음 경험한 온라인 전시는 받을 들이지 못하는 전시장에 대한 향수를 일으킬 뿐이었다. 모두에게 다 급하게 떠맡겨진 변화이니 어쩔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감정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고찰은 온라인만의 장점을 살린 예술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내게 배송된 작품을 '언박싱'하는 일은 지금껏 직접 작품을 관람하러 '방문'하기만 했던 경험을 흔들어놓았다. 또한 이런 시도는 미술관에는 실체가 있는 조형예술만 전시돼야 한다는 편견을 전복할 더욱 강력한 계기가 됐다.

위드 코로나 시대인 지금, 돌아보면 지난 2년은 장벽에 가로막힌 듯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장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 역시 이때의 시련이 아닐까 싶다. 비운 뒤 땅이 굳어지듯, 예술계의 변화가 관객과 예술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고대한다.



아르코미술관 전시 <황당하는 물질의 세계> 중 수지 이바라, 미셸 콥스의 'Water Rhythms: Listening to Climate Change'. 녹음된 물소리가 작품임을 알고는 조금 당황했다.

배우,
그리고
높은 곳을 품으며
달려가는 사람

서울문화재단 신임 이사장 박상원



“나 떨고 있니?” 두려움에 떨고 있던 태수(최민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던 우석(박상원)은 시선을 교차한다. 고향 친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이 뒤섞인 장면(드라마 <모래시계>)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필자 인생 최고의 한 장면이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 설립 초기, 마라톤 캠페인에서 남산 자락을 함께 달리며 우석을 두 번째로 만났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 본지(2014년 6월호 ‘사람과 사람’) 인터뷰에 초대돼 대한민국 연극의 심장으로 불리던 드라마센터에서 쌓인 생생한 기억을 들려줬다. 그리고 2021년 10월, 43년 경력의 배우 박상원은 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하며 서울의 문화예술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대중에게 서서히 다가온 그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캐’로도 활동해 왔다. 대한민국 1호 남자 무용수, 오만에서 대자연의 장관을 필름으로 담아낸 포토 그래퍼, 그리고 차세대 연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의 지도교수까지. 그를 소개할 수 있는 직함만 해도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그는 인터뷰 직전, 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서 첫 공식 행사에 참여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자간담회였는데, 몇 번의 시연을 반복하며 폐달을 연신 밟아 힘들 뻔도 했지만, 철인삼종으로 단련된 하체를 가졌다며 얼굴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인터뷰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배우 박상원은 이제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❶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곳(드라마센터)은 이사장님께서 모교이자, 재단이 11년(2009~2020) 동안 운영했던 극장으로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렇게 서울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밖에서 본 재단과 이사장으로서 마주한 재단의 모습은 어떤가요?
재단과 첫 인연을 맺은 게 2004년 3월 18일로 기억합니다. 세

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재단 출범식에 정연희 당시 이사장님과 유인촌 전 대표님의 초대로 갔습니다. 당시로서는 다소 생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술기관으로서 서울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려는 서울문화재단의 탄생을 지켜보게 됐죠. 이후 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마라톤에 저를 초대하셨어요. 남산순환도로를 재단 직원들과 함께 달렸는데, 그때 게스트로 함께 뛰고 막걸리도 마신 기억이 있어요. 돌아보면 서울문화재단이 하는 일들을 다양한 계통에서 듣고 보고 체험하게 돼 재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했어요. 이번에 이사장으로 오게 되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됐지요. 재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서울은 대표성을 띤 도시이기에, 서울의 문화예술은 곧 대한민국의 예술이고, 나아가 세계 문화예술을 견인하기도 하잖아요. 평생 이 계통에 있으면서 재단과 인연도 있어서인지 이사장이라기보다 한 명의 예술인으로 함께하게 됐다는 점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❷ 며칠 전, 이사장님 취임식이 있던 날 재단 신임 직원과 함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브이로그V-log를 촬영했습니다. 요즘에는 1996



년에 태어난 신입 직원들도 입사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출연한 드라마 <모래시계>가 열풍이던 시기(1995)잖아요. 최근 출연하신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은 시청률 45%를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30년 넘게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에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부담감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일단 정정할게요. 정상이 아니라 높은 곳을 품으면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 같아요.(웃음) 어려움이 많죠. 요즘 가까이 함께 사는 존재를 ‘반려동물’ ‘반려식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에겐 어려움이 ‘반려감정’인 것 같아요. 어려움이란 건 치명적인 영향력을 줄 수도 있지만, 반려감정으로 잘 지니고 있으면 백신처럼 항체를 만들어 실제 위기가 왔을 때 크게 치명적이지 않고 이겨낼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제 삶의 신조 중 하나는 ‘위기의식을 장착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비 오는 날이든 짙은 날이든 소위 ‘잘나간다’ ‘못나간다’라는 평가와 상관없이, 바쁘면 바쁘게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가하면 ‘쉬라는 거구나’ ‘준비하라는 거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들어왔다 나가겠지’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마치 주사 맞을 때 구구단을 외우며 정신을 다른 곳에 집중하듯 말이죠. 멀리 있는 희망을 바라보며 갔을 뿐이에요. 위기라는 게 많았을 거예요. 인간이라 어렵지만 일회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❶ 국민 배우인 줄로만 알았는데 ‘한국 남자 무용수 1호’이시더라고요. 최근엔 “무용이 초중등학교 교과에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에도 참여하셨고요. 장르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에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순수예술인 무용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1호 무용수라는 건, 40여 년 전 당시 무용을 접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다는 의미예요. 남극 대륙에 첫발을 내딛는 느낌이었을까요. 당시 한국 예술계에서 흔하지 않은 장르의 초월과 융합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노력도 있었으나 행운이었죠. 하지만 이걸 자연스러



박상원 모노드라마 연극 <콘트라베이스> 한 장면

운 일이었어요. 작업에 참여하면서 연기자로서 정신과 육체를 확장하는 과정이니까요. 어찌면 우리는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무용을 시작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장아장 걸으며 중심을 잡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용이고 연극이죠. 연극·음악·무용 다 기초 영역이니 교육에 들어가야죠. 꼬마들이 텔레비전을 보다 블랙핑크를 보고 흉내 내는 행동이나 우리가 리듬을 타는 동작은 당연한 움직임이잖아요. 최근엔 댄스학원을 다니는 학생도 많은데, 이때 무용이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같아요. 무용은 여전히 세계 영향을 줍니다. 골프를 쳐도 공이 훨씬 멀리 나가는 걸 보면 유연성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무용은 몸의 중심을 다루는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❶ 연극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오후에도 연습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도 연극 무대에 계속 서시는데, 무대예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연극’은 이사장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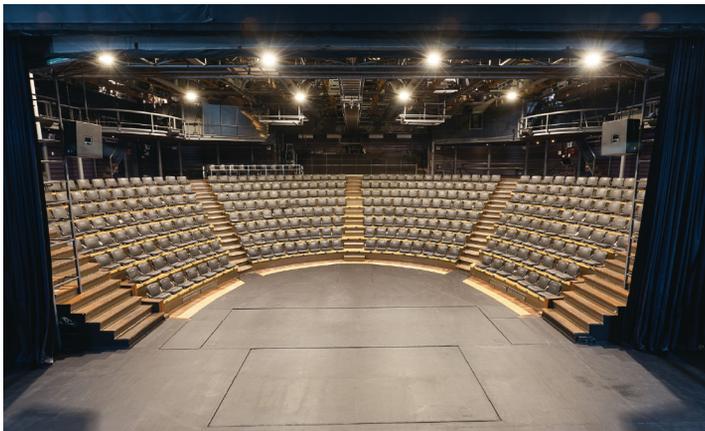
저한테 연극은 자궁처럼 느껴지죠. 마치 엄마의 배 속과도 같아요. 저의 생각을 비롯해 모든 것의 원천이니까요. 문화나 예술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생각의 중심이 돼주죠. 1978년 3월, 물리적인 나이로는 성인이 돼가고 있으나, 성숙한 인간으로선 빈 박스였던 시기에 연극이란 걸 잘 모르고 택했으니까요. 극장이라 하면 흔히 프로시니엄Proscenium, 3면이 관객에게 개방된 형태 무대를 떠올리던 시기에, 여기 드라마센터는 아레나 스테이지Arena stage, 관객들이 연기자를 둘러싸고 관람하는 무대가 있었죠. ‘우와’ 감탄할 만큼 너무 신기했어요. 극장 공간의 확장을 경험한 거죠. “배우가 밑에 있고 관객이 위에 있으니 위를 보고도 연기할 수 있구나!” 모든 것이 충격적이고 신기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메타버스를 처음 만난 기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40여 년 연기자 생활을 이어오는 걸 보면 저는 ‘덕업일치’를 이루었다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걸 써먹지

못하는데, 다행히 저는 40년 넘게 한 분야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발휘시키고 있으니까요. 물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다행히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극, 뮤지컬, MC, 라디오DJ 등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 이제는 서서히, 무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해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재단 이사장으로 오면서 든 생각은 다양한 분야를 어깨너머로 보면서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울시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운반하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❷ 문화예술계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중 ‘어떻게 하면 관객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수님으로 수업도 하시고 현장 예술가로 작업도 하시는데, 문화예술이 낯선 일반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관객 개발’ 노하우가 있을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 같아요. 대학로에 이른바 스타가 올 때, 굴러온 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영향력을 줄 수는 있어요. 핵심은 환경과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늘 준비하고 갖추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득이 될 것이고, 그런 구조로 밥그릇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실이라는 거죠. 가능하면 재단도 지혜롭게 운영해야겠죠, 공공기관이니까. 시골 장터에서 할머니가 한두 개 텀을 줄 때의 마음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저렇게 지원을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폭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재단은 전문가 그룹이니 그렇게 가야 하겠죠. 예술계 현장 상황에 대해 많이 알고 공연도 많이 봐야 하고요. 저도 재단의 일원으로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단이 운용하는 지원금은 어느 독지가 한 사람이 출연한 게 아니라 모래알처럼 모인 시민의 세금이니까요. 1천4백억 원을 써도 1조4천억, 아니 140조 원의 가치로 영향력이 발휘되면 좋겠어요. 도로에 보도블록 깔고 다리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사실 서울시 전체 예산 규모에 견주면 작겠지만, 제일 효율성 높은 파트가 아닐까요. 재단 직원이라면 자부심을 갖고 문화NGO로 활동해 주길 바라요.

남산에 있는 드라마센터 원형 무대





❶ 극장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7년 전 본지 인터뷰에서는 여기 드라마센터와 남산에서 간직한 기억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재단이 오랫동안 극장을 운영했기에 이곳은 개인적으로도 애정이 남아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홍보하는 입장에선 대표 콘텐츠가 종료돼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재단은 남산에서 대학로로 무대를 옮겨 공공극장의 두 번째 시즌을 이어갈 텐데 극장의 선배로서 어떤 점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와 비슷한 세종문화회관은 대극장·중극장·소극장이 존재하고 각 공간에 맞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재단에는 ‘대학로공연장’¹과 삼일로창고극장이 전부죠. 뉴욕 브로드웨이나 런던 피커딜리 극장의 정서를 보여주는 게 세종이라면,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공간, 새로운 공연 양식의 씨앗 같은 걸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뉴욕의 ‘오프의 오프의 오프’처럼 10년, 20년, 30년 후엔 시대의 문제작을 배출한 자궁 같은 극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홍보와 관련해서는 시민이 즉각 체감하는 건 축제나 예술청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공간일 텐데 이런 곳이 투명하고 입체적으로 운영되면 곧 홍보의 장이 될 거라 생각해요. 다른 사업은 창작자에게 인풋을 제공해 근간을 만드는 것이겠죠. 특히 앞으로의 공공극장이나 예술청은 순수 창작자에게 개방해서, (손익분기점을 우선하기보다) 좋은 공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어디서도 보지 못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대관비 받고 대여하는 상식적인 공간 말고,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싶다, 이걸 행운이다’ 느낄 만큼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이 극장에서 하는 공연은 주제와 과정을 잘 담아낸 [문화+서울] 두개의 프로그램 북을 포함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거죠. 가격도 싸고 공연이 좋으면 극장 앞에는 늘 줄을 설 거예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객석이 한 자리도 비지 않고 만석이면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일반 극장이 아닌, 비교 대상이 없는 특별한 극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센터가 가진 역사성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극장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마루와 마루 사이에 낀,

천장에 붙어 있다 떨어지는 먼지가 어마어마한 것이라고요. 감성적인 이야기지만 그 먼지를 ‘팬텀 오브 드라마센터’라고도 표현하는데, 극장을 거친 수많은 작가·연출자·배우의 것이 극장에 떠돌아 화석처럼 배어 있는 거죠. ‘먼지 총량의 법칙’은 배우로서 제 지론 중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연습실의 먼지를 어느 정도 먹어야 하고, 연습실에서 어느 정도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공연과 공연장은 그럴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광고를 얼마나 찍고 스타가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먼지의 총량과 땀의 총량이 이루어낸 것, 그게 성공인 거죠.

❷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우·무용수·사진작가·교수에 이어서 이번에 공공기관의 이사장까지 또 하나의 ‘부캐’를 쌓으셨습니까. 이와는 별도로 2022년 개인 박상원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공연계에서 1월은 보통 비수기라고 하는데, 작년에 예술의전당에서 한 모노드라마 형식의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어서 하게 됐어요. 더불어 KBS 주말드라마를 봄부터 가을까지 들어가고, 제 모교이자 교편을 잡고 있는 서울예술대학교가 내년에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네요. 제가 총동문회장이기 때문에 거의 총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몇십 가지 행사를 총괄하는 동시에 학교 수업도 해야 하고 봉사활동이나 사회적인 일도 계속할 예정이고요. 물론 재단 일도 열심히 구경할 생각입니다. 대표는 재단을 잘 챙겨서 밖을 봐야 하니, 저는 이사장이자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거리예술축제·예술청·서교예술실험센터·금천예술공장 등 어디든 기회가 있다면 어느 때보다 부지런하게 수혜자 입장에서 보고 제안도 하고 싶어요. 적절하게 가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부 개선도 필요할 테고요. ‘두드러진 시민’이 이사장의 역할이 아닌가요 싶습니다. 재단 식구, 현장 관계자, 시민의 1인 3역을 지혜롭게 하면 이사장으로서 작게나마 제 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옛 동숭아트센터 동송홀을 리모델링해 공공극장으로 조성중이다. (2022년 6월 개관 예정)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 정리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 사진 제공 박상원, 박앤남공연제작소, H&H PLAY

※ 문화인의 제목 폰트는 박상원 이사장의 필체를 본떠 만든 ‘박상원체’로 사용했습니다.

‘조각보 디자인’ 따릉이



**“평상시 즐겨 이용하던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제가 직접 디자인한 패턴이 녹아들어간다가 엄청난 영광이죠.”**
서울문화재단과 포르쉐코리아가 함께 진행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외관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공모전 ‘포르쉐 드림 아트따릉이’에서 대상을 받은 박기쁨 디자이너가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공모전에서 그는 작품 <모아모아>로 1등을 차지했다. 그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의 안병학 교수와 세

계적인 명품 자동차를 생산하는 포르쉐의 독일 본사 소속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최종 시안으로 다듬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적용된 총 365대의 따릉이가 자전거 대여소에 거치됐다. 이후 따릉이는 서울시 곳곳을 누비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그의 아이디어는 우리 고유의 전통미가 담긴 ‘조각보’에서 착안했다.

“서울을 대표하는 자전거인 만큼 한국의 전통미가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면적이 차체와 바퀴로 제한됐기 때문에 패턴 방식을 생각했어요.”

예로부터 조각보는 음식을 덮어두거나 집 안을 장식하는 생활 미술로 활용됐다. 그는 조각보가 원래 색색의 천 조각들을 이어서 만든 보자기였으며, 이것에 영감을 받아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번 공모전의 주제인 ‘친환경 도시 서울을 달리는 따릉이, 예술적 상상을 덧입다’의 취지를 살려서 “친환경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바람개비 패턴을 고안한 것”이라 전했다. 그는 조각보를 입은 따릉이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드러냈다. “바람개비 패턴이 ‘삶이 순탄하게 돌아가라’라는 의미도 있대요. 요새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는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박기쁨 디자이너

박기쁨은 일러스트 그리기를 좋아하는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북아현을 담다’ 마을 모임을 운영하기도 했다. 수상 경력으로는 라인데코 아티스트 공모전 3등, 네이버 그라폴리오 배경화면 챌린지 #1 당선,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국제공모전 수상,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국제공모전 수상 등이 있다.





‘하우스’와 ‘홈’의 차이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은 우리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

서연수 안무가는 2020년 서울무용제의 경연 부문에서 최우수 상을 받은 <집속의 집>을 지난 10월 아르코 온라인 극장에서 상연했다. 작품은 지난 8월 27일 관객이 객석을 가득 채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 바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관객에게 다시 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상연한 것이다.

그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한 서도호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집속의 집>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학 시절에 느꼈던 향수를 의미하는 (서도호의) 집과는 다르게 저는 집을 통해 다양한 삶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것은 형태(하우스)가 아니라 인식처(홈)의 의미죠.” 2020 서울무용제에서 초연한 작품은 올해 부제 ‘두 번째 이야기’를 달고 1년 만에 돌아왔다.

오브제를 활용한 연출이 돋보이는데, 집에서 일어나는 한 여자의 심리 변화를 내·외면으로 구분했다. 또한 관객과 무대를 연결하는 한 남자의등장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드라마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답답함을 느낀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붉은 문을 앞에 두고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는 모습이나 ‘그림자 장면’으로 하나가 되면서 안정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에요.”

그동안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국 춤을 창작한 그는 2020 서



울무용제에서 주목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에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예술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될 만큼 대중성과 예술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그는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 “컨템퍼러리 안무가로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춤으로 관객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했어요. 동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거나 예술 작품을 통해 더 깊은 가치를 보이는 것이 예술가의 특권 아닐까요.”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서연수 안무가

서연수는 한양대학교에서 무용학으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쿼덴스프로젝트 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집 속의 집>(2020) <숨 쉬는 나>(2019) <공동체>(2018) 등이 있다.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늘 풍성할 줄 알았던 나날 부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앙상한 가지 한 가닥 바라보며 내년에는 꼭꼭!
해보며, 이만 총총^{恩恩}

*명동 신세계: 1930년대 미스코시백화점, 지금의 신세계백화점은 모던 겔과 모던 보이가 하루를 보내던 로망의 장소다.
이상(李箱, 1910~1937)의 소설 <날개>의 주인공이 "날자, 날자" 하고 울조린 곳이 이 백화점 옥상이다.
현재에도 백화점 옥상은 현대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됐다.

글·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전문위원





도시 품격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2021 공공디자인 토론회 '공공가치를 디자인하다'

일시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45분~4시 30분

좌장 이종혁 공공소통연구소장,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발제 헨리 창Henry Tsang 아사바스카 대학교Athabasca University 건축학부 교수

문은배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태우 아모레퍼시픽 CRS팀 부장

매튜 마조타Matthew Mazzotta 공공미술가

토론 이연숙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명예특임교수

이현성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전공 부교수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동영상 youtu.be/4ayKI33WbPU

정부는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고, 2018년 관계 부처가 협력해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공공디자인을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전환기를 맞아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처음으로 돌아가 공공디자인의 의미를 새롭게 확립해 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15회를 맞이한 '공공디자인 토론회'에서는 '생활안전'과 '생활품격' 두 개의 주제와, 특별 주제 '도시 품격'을 놓고 국내외 공공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 일상 시대에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1월 9일 하루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환경부와 함께한 특별분과 '도시품격을 더하는 공공디자인'과 종합토론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식과 교육, 실내 환경 성능과 자재, 자원을 고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든 신규 건물의 탄소중립을 의무화하고 2050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최근 설계한 캐나다 캘거리의 일본인 커뮤니티 센터로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중앙의 안뜰은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휴식을 주는 정원 역할을 하며, 지역 토종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태양열 패널을 설치한 지붕은 태양의 이동 경로에 맞춰 구부러진 형태이며, 지상층은 개방된 형태로 자연광이 실내 깊숙이 들어와 빛과 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재로 대형 목재를 사용해 생애 주기 동안 배출되는 탄소발자국을 줄였습니다.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휠체어 사용자나 고령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회복력을 갖춘 건축은 '대응-회복-준비-완화'라는 재난의 4단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1년 설계한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보건과학 캠퍼스는 대학의 교육시설과 병원을 설계하는 공공 프로젝트로 2004년 쓰나미로 피해를 본 인도네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관계자 간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최초의 1급 녹색 건물이자 자연재해 회복력을 갖춘 건물로 설계했습니다. 대형

발제 1 친환경 건축 및 공공디자인의 글로벌 동향

헨리 창 아사바스카 대학교 교수

녹색 건물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건물을 말합니다. 기존 건물보다 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기여합니다. 녹색 건물을 설계할 때는 에너지와 기후, 물 효율성, 지속 가능한 부지, 위치 및 연계성, 혁신과 디자인, 인



녹화 지붕, 수직 녹화벽, 태양광 패널, 빗물 재사용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회복력 확보를 위해 건물에 면진 구조 기법을 도입해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려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했고, 자체 발전기를 설치해 전력 공급 중단 시에도 건물이 기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회복력 있는 건축과 공공디자인을 위한 주요 전략은 첫째로 태양, 바람,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 도로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존해 디자인에 녹여내야 합니다. 좋은 디자인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이해,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를 보존하고 향상하는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며 누구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건물 이용자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무해한 건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공기와 실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건물을 설계해야 합니다.

발제 2 **자원회수시설의 심미적 복합 환경디자인**
문은배 청운대학교 교수

자원회수시설은 원래 쓰레기처리장, 쓰레기소각장으로 불렸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시작한 2008년 당시 쓰레기소각장은 혐오시설이었기 때문에 냄새 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을 공공디자인으로 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늘진 숲속 좁고 어두운 곳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에는 동네 비행 청소년과 강패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예쁘게 꾸미려고 했는데 이런 위험 요소로부터 구하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하고 밝으면 이들이 모여들지 않으니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까다롭고 걱정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시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슈였고, 예술성을 가미해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3D로 시안을 만들어 구스타프 클림트, 몬드리안, 칸딘스키, 훈데르트바서 스타일 등을 제안해, 최종 ‘훈데르트바서’안이 채택됐고요. 중요한 것은 싸움장이 돼버린 숲의 나무를 다 베어서 잘 보이게 한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물려오면 강패들은 없어지고, 환한 데서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안전이 확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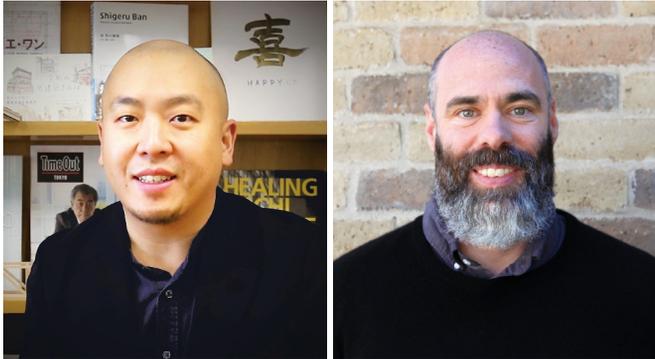


종합 주제 '삶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토론

니다. 숲을 밀었다니 가족 공간이 됐고, 주민들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하수처리장 옆에 있다 보니 냄새가 더 많이 나서, 소각장 옆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색채 계획까지 했고, 두 번째로 하는 작업이라 예술적인 표현이 더 많아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야간 경관도 아름답습니다. 조명 하나 없이 킁킁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던 숲을 없애고 체육시설과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12년 전이라 기술 부족으로 시트지를 붙였기 때문에 지금 앞면이 바래 있습니다. 강남은 몇 년 후 컬러 아크릴 생산기술이 좋을 때 만들어서 지금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두 곳의 사례를 통해 오스트리아 훈데르트바서 하우스, 일본 마이시마 소각장처럼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적이고 예술을 가미하는 사례를 많이 도입하면 좀 더 완성도 높고 오래가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발제 3 **화장품 플라스틱 공병을 활용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김태우 아모레퍼시픽 부장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 활동인 그린사이클 캠페인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공공디자인으로 풀어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랜 기간 화장품 공병을 수거해 왔고 많은 분이 동참해 주고 계셔서 1년에 우리와 플라스틱을 합쳐 200톤 이상 수거되고 있습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유행과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문제가 작년과 올해 크게 부각되면서, 이제 많은 기업



헨리 창

아사바스카 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매튜 마조타

공공미술가

과 국민이 플라스틱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린사이클 캠페인 담당자로서 반갑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이전에는 플라스틱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고 홀대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국 매장에 공병이 모이면 파쇄·세척·탈수 후 재생이나 압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플라스틱 재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공병의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PP재질에 한해 펠릿Pellet이 되고 이 펠릿이 용도에 맞게 재활용되는 수준입니다. 작년 이맘때 포스코 사내벤처 1호인 이음텍에서 철광석의 부산물 ‘슬래그’를 플라스틱과 결합해 ‘슬래스틱’으로 만들어 건축자재로 재활용한다는 발표를 듣고 이음텍에 연락해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이태원의 공중화장실을 ‘아리따운 화장방’으로 조성하면서 건물 외장을 플라스틱 공병 펠릿 3톤이 포함된 슬래스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로구에서 시멘트 회사 삼표와 협업한 사례입니다. ‘OTHERS’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 방법이 없던 차에,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에 플라스틱 조각을 밀가루 반죽하듯 섞어내면 이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종로구에 벤치 기증을 약속한 김에 기왕이면 UHPC로 벤치를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겉에만 몇 개 발라놓은 테라초Terrazzo기법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으나, 안전도를 테스트 하며 최소 30%~최대 50%의 분쇄 플라스틱을 시멘트와 섞었기 때문에 시멘트 안 곳곳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사내 디자이너가 재능기부로 참여했습니다. 회사에 사회문제나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가 과거보다 많아졌지만 중간에서 담당자가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에는 선뜻 참여하겠다는 디자이너가 많았습니다. 몇몇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벤치를 기증해 달라거나 선물로 달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희도 공공디자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을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 체계를 갖춰서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중 하나가 기부 처리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공공디자인에 참여할 명분이나 예산의 가용 범위가 줄어들 겁니다. 종로구는 그런 해법을 저희한테 먼저 제안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디자이너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부도 하고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기업의 공공디자인 참여를 더 많이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제 4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공간 프로젝트 매튜 마조타 공공미술가

저는 지역사회와 그 안의 공공장소를 다루는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리서치에서 시작하는데요. ‘야외 거실’은 지역사회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장소를 만드는 작업으로 어느 지역에 가든 이 과정을 거칩니다. 실내에서 쓰는 가구를 공공장소에 두고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야외 거실’을 설치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들을 수 없는 주민의 목소리를 포착하고, 그곳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모은 정보가 작품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점가 극장Storefront Theater>은 시내 중심가를 야외 영화관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로 미국 네브래스카주 리옹에 있습니다. 건물 전면을 열어 좌석을 꺼내고 스크린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상점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다 보니 시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비슷한 의견이 모이면서 극장을 만들기로 하고 그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영화제작자에게 주민과 함께 영화를 만들자고 제안해 준비하고 홍보했더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이 배우로 출연하고 시내에서 촬영해 만든 영화를 극장 최초 상영작으로 선보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구름 집Cloud House>으로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파머스 파크에 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양철 지붕에서 나는 빗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



색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지하에 저장되고, 사람이 흔들의자에 앉으면 펌프가 작동되면서 빗물이 위로 올라가 구름 모형에서 비가 내립니다. 창틀에 재배하는 식물 위로도 빗물이 떨어 집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자연에 얼마나 의존 하고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파크 스파크 Park Spark>는 개의 배설물을 공원 조명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매사추세츠 주 케임브리지 퍼시픽 스트리트 공원에 설치했습니다. 개 배설물을 생분해 비닐에 담아 탱크에 넣고 핸들을 돌리면 내부에 있는 물과 배설물이 섞입니다. 배설물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메탄을 에너지원으로 주전자의 물도 데울 수 있습니다. 반려견 공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얼마든지 도시 전체에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탬파 공항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는 진행 중인데, 공항 한가운데 커다란 플라밍고 가 자리 잡고 있는 작품 <집 Home>입니다.

제 일을 사과에 비유하면, 사과 안의 씨앗은 정보이고 사과는 매개체입니다. 동물은 사과뿐만 아니라 씨앗까지 먹은 채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저의 모든 작업은 반짝거리는 향긋한 사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흥미가 생기고 호기심을 느끼면 다가옵니다. 한번 경험한 후에는 본인의 것으로 소화해 집으로 가져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친구, 지역사회, 다른 공동체와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다가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 직접 경험하고 돌아가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협력과 순환 모델이다

이종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합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연숙 교수님께 공공디자인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총평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연숙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은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영역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과 이상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어느 정부 부처에서 하든 협력하는 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 관련 시설, 복지부는 복지 관련 시설, 행안부는 주민 관련 시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문체부는 문화시설이 있겠지만, 정부 부처를 총망라해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문화

적인 본질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지속가능성에는 크게 자연생태계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생태계적 지속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는 시간과 지식의 부족으로 많은 디자인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여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이 물질적인 부만 아니라 생물학적, 문화적 부도 추구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깊은 디자인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은 영향력이 크고 범위도 넓고 한번 조성되면 시간적으로도 길게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려면 우선 머리와 꼬리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위에서 몸체만 내려주었다면, 이제는 지역에 맞는 제대로 된 방향에 대한 머리와 지속 가능하게 발전·유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꼬리를 잘 만들어서 공공디자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정보의 깊이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구상과 점검을 철저히 할수록 지속가능성이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공간과 사용자의 범위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좋은 공간을 만드는 정보가 많을수록 지속 가능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드웨어 안의 콘텐츠와 시민 역량에 관한 휴먼웨어까지 동시에 생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공공디자인을 촉진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전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이해관계자가 순차적으로 개입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한자리에 앉아 총체적인 관점에서 역할의 비중은 달리하는 환형 계

문은배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태우

아모레퍼시픽 CRS팀 부장



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 참여와 협력, 공감에 의한 반응형 계획이 필요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유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의 역할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흔히 디자인 하면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생적인 삶의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므로 양 방향으로 진작시켜야 합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정책에서는 자연생태적, 사회생태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 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문체부가 좀 더 외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종혁 이현성 교수님께는 앞선 이 교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방향이나 요구되는 개념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현성 오늘 발제 내용을 관통하는 용어는 협력과 융합입니다. 발제자들의 이력만 봐도 다양성과 확장을 이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시작된 공공디자인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공공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고, 10년이 지난 2016년 초 공공디자인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유형적 대상의 개선에서 주제적 개선으로 진일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합계획을 통해 나타난 생활안전, 생활편의, 생활품격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공공디자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적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앞서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와 ‘안전·편의·품격’이라는 주제는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은 ‘만드는 방법’이죠. 공공기관에서 비용을 투자해 만드는 방식으로 같지, 서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서 풀어나가는 ‘컬렉티브 임팩트’ 방식으로 같지,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봅니다. 기업에서 공공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디자인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잘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공공디자인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공의 문제 해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론과 협력적·회복적 거버넌스 모델을 공공디자인에서 만들어준다면 공공의 가치가 향상되고 생활 곳곳에서 실현되는 이상적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종혁 문은배 교수님 프로젝트에서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

제언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은배 오늘 말씀드린 사례는 유난히 민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통의 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을 한 명씩 붙여서 스토리텔러를 시켰습니다. 그냥 편하게 원하는 거 얘기하려고 하고 거의 자서전을 만들어줍니다. 그 정도로 다가가도 그분들이 한마디 꺼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단지 시설물이 오래가고 자연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의 생활 패턴에 자연스럽게 녹으려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설득이 어려웠을 때 문제를 푼 방법은 다가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디자인을 잘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사용할 분들을 위해 귀를 열고 무슨 얘기를 들을까, 나는 디자이너이니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혁 김태우 부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재활용한 것임을 홍보용으로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벤치는 친환경임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끔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디자인이 기업과 민간의 영역까지 확산되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 저희가 벤치를 친환경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UHPC가 기존 시멘트에 비해 친환경이라는 주장은 시멘트 업계에서 하는 건데요. 콘크리트에 섞인 플라스틱이 영원할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성 같은 부분을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했고, UHPC와 플라스틱을 섞는 시도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버려질 것을 재활용했다고 친환경 벤치라고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앉는 데 불편하거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공공디자인의 본질에 충실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공공디자인이 시설로만 얘기되는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는 분이 그간 노란 리본을 심벌로 사용해 왔는데 새로운 상



이종혁

공공소통연구소장



이연숙

연세대학교 실내건축학과
 명예특임교수

이현성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전공 부교수

정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 와서, 용산에 있는 기업·학생들 (용산드래곤즈)과 서울시의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에 참여해 함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캠페인, 상징물이 필요한 영역도 있으니 이것도 공공디자인에 포함된다면 기업들이 재능을 살려 참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협업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개인의 참여와 지역이다

이종혁 이연숙 교수님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자체와의 협력 외에 개인이 공공디자인 영역에 참여할 기회라고 할까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감각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해안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연숙 이건 공공디자인 영역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에 필요한 영역인데요. 공공디자인의 효과가 잘 드러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공감한 다음 합의를 도모하는 기술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공공디자인은 저 멀리 밖에 있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 사회에 있는 문제를 발굴하고, 좋은 디자인을 옹호하는 역할에 개인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개별로 혹은 '단'에 들어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둘러보고 필요한 것을 발굴해 내는 공공디자인의 초기 단계에 공헌할 수 있고요. 평가할 때도 제대로 된 관점으로 비판하

고 좋은 것은 옹호해 주면 공공디자인과 개인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혁 공공디자인은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지방 아니던 소단위 공동체에서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지역 중소도시에서 공공디자인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현성 우리는 표준화와 글로벌화가 좋은 것으로 교육받아 왔는데, 돌려 생각하면 로컬리티^{Locality}의 반대말이거든요. 표준화의 맹점은 각각의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표준형에 모두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모든 디자인의 방향은 휴먼스케일로 가고 있고 로컬리티는 공공디자인에서 좋은 말이 되고 있어요.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이라는 도시 공간의 문제를 실험적,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 유형도 마스터플랜 단위가 아닌 수복형 단위로 가야 합니다. 대도시보다 로컬 단위에서 소규모 공공디자인 과정이 더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요. 공공디자인의 문제 해결에는 옛날 두레나 품앗이 문화를 기초로 하는 일상 문화의 적용,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수복형의 실험적 방안이 효과적입니다.

이종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담지 못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오늘 이후 나머지 정책들을 통해 더 많은 토론의 장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 사진 제공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예술 현장과 소통을 이뤄냈는가

동료평가제도 시시비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현장 예술인을 지원하면서 도입한 경쟁자 상호 평가 방식의 '동료평가제'가 인권침해 시비에 휩싸였다. 이 제도에 반대하는 예술인 375명이 지난 8월 폐지 촉구 성명을 낸 데 이어 여성 혐오와 차별, 모욕 등 인권침해를 낳는다며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동료평가제 논란의 뿌리를 찾다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닿게 된다. 블랙리스트 파장으로 2015년 중단된 다원예술지원사업을 6년 만인 2021년 재개한 것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개선 이행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의 제도개선 기초는 다음과 같다.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직적 관료 시스템의 폐해와 퇴행적인 협치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개방성·투명성에 입각해 예술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해 민주적이고 평등한 결정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동료평가제는 이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제도개선책 가운데 하나가 동료평가제였던 셈이다.

각종 토론회에서도 제도개선의 핵심 축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현장 목소리 반영'이 제시됐다. 지난 3월 16일 예술위가 주최한 '다원예술 지원사업 복원' 토론회에선 현장과 접촉 수준을 높이는 것 자체가 투명성을 증진하는 방향이란 의견이 많았다. 예술위가 2020년 12월 16~18일 마련한 현장 대토론회에서도 '현장 이해도가 있는 기획자나 예술가, 관객 그룹에 의한 다면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술위는 지난 4월 23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동료 그룹 심의'란 이름으로 동료평가제를 공표했다. '예술 현장의 참여를

통해 동시대 다원예술의 정책적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담론을 공문화한다'는 게 동료평가제 도입의 취지였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예술위 안팎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 분위기가 많았고, 투명성과 현장이란 화두도 빛나간 과녁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도의 세부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세심한 검토와 충분한 준비 필요

현장에서 흘러나온 동료평가제의 문제점은 크게 여섯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혐오와 차별, 모욕 등이 담긴 익명의 심사평을 평가 당사자에게 여과 없이 원문 그대로 통보했다. 가장 큰 폐해로 지적됐다. 둘째, 응모자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평가를 거부하면 무조건 지원에서 탈락하는 구조였으니 소규모 지원이라도 절실한 이들로선 평가 방법이 토를 달기가 어려웠다. 셋째, 40여 건의 지원서를 닷새 안에 평가하려면 시간이 빠듯했다. 그러면서 심사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착취'라고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넷째,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기술돼 있고, 그나마 '다양성' '실험성' 등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의 나열이었다. 평가 기준이 흐릿하니 평가자의 주관이나 취향, 정치 성향에 따라 심사가 이뤄지는 폐



단을 낳았다. 다섯째, 평가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었다. 현장 사람들에게 동시대 예술의 방향이나 창작 생태계의 발전 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이고 책임감 있게 심사해 달라는 건 과한 기대다. 여섯째, 동료평가제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민이 부족했다. 경쟁자끼리의 평가가 자칫 잘못하면 ‘상호 깎아내리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 더구나 서로 교류나 접촉이 없고, 가치와 철학의 공유조차 부족한 상태였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세부 내용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평가에 참여한 이들 중에 “심사위원 일손 덜어주는 무보수 아르바이트 같았다”는 느낌을 토로한 이도 있다. 소액이라도 일정한 심사비를 제공했다라면 어땠을까 싶다. 동료평가제를 유독 저예산·젊은·신예 따위의 수식어가 붙은 공모에 국한해서도 곤란하다. 심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도 제공하는 게 좋겠다. 가능하다면 심사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평가의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다. 예술위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한 김미도 서울과기대 교수의 제안처럼 1차 심사가 아니라 최종 심의 과정에서 지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발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참여자 대상 설문 결과 중

동료집단심의 방식 확대 적용에 대한 의견 n=185단체(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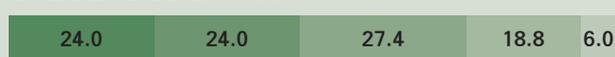


동료집단심의회에 대한 인식 n=117단체(인) 단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심의 과정 절차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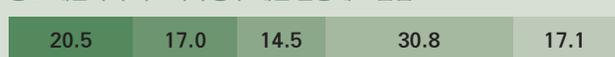
동료집단심의를 통한 심의 공정성



동료집단심의를 통한 학습 기회



동료 예술가의 피드백이 향후 예술 활동에 도움됨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국의 동료평가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영국예술위원회의 심사 기준 8개 항목엔 ‘지원자의 작업이 동료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가?’가 포함돼 있다. 500여 개의 기금을 운영하는 캐나다 매니토바주 예술위원회는 기금 지원 심사에서 ‘동료 예술인 평가제Peer assessment’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반적 추세는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다. 예술지원기관이 심의 주도권을 행사해 책임 있게 지원하되 각종 제도를 마련해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영국에선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지만 기본적으로 결정권은 예술위원회의 위원회와 사무국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원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지원에 대한 최종 결정도 지원심의위원회가 아닌 예술지원기관 차원에서 책임성 있게 내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판단을 대부분 심의 위원 개인에게 부여한다.

투명성 없는 책임성은 독단과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기 쉽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그 비극적 결과 아니었던가. 책임성이 부족한 투명성도 문제는 많다. 이번에 논란을 빚은 동료평가제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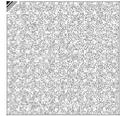
이와 연출, 김보라 안무 <시간의 흔적> ©STUDIO OFF-BEAT



춤과 영상을 하나로 합하다

댄스필름의 융성기

코로나19 창궐 이후 댄스필름이 융성하고 있다.
극장이 문을 닫으면서 무대를 잃은 무용가들이 영상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기존 공연과 축제가 온라인 상영으로 빠르게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댄스필름은 무대 춤을 영상화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춤과 영상이 융합해 탄생한 이 장르는
어떻게 형성됐으며 얼마나 다양할까.



댄스필름의 시작

19세기 말 영상매체가 발명됐을 때부터 무용가들은 중요한 피사체가 됐다. 영상이 '움직이는 사진'이라면 춤은 움직임을 대표하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1894년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무용가 루스 세인트 데니스의 춤을 찍었고, 영화감독 조르주 멜리에스는 <매직 렌턴>(1903)에 13명의 무용가를 출연시켰다. 유성영화가 개발되자 뮤지컬영화가 인기를 끌며 프레드 아스테어, 진 캘리 등의 스타 무용가가 등장했고, 이후 서사 영화, TV 쇼와 다큐멘터리, MTV 뮤직비디오 등에서 무용가들이 종종무진 활약했다.

새로운 길을 꿈꾼 이들도 있었다. 20세기 초의 무용가 로이 풀러Loie Fuller는 영화감독의 피사체에 머무르기보다 스스로 창작자가 됐고, 1940년대 미국 아방가르드 영화감독인 마야 데렌Maya Deren은 할리우드 영화나 무대 춤과는 다른 새로운 장르를 제시했다. 로이 풀러와 마야 데렌은 무대 춤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예술 형식인 댄스필름의 선구자가 됐다.

오늘날 댄스필름은 춤과 영상이 결합된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자 독립적인 예술 형식을 지칭하는 좁은 개념이다. 제작 목적에 따라 크게 무대 춤을 보존하기 위한 기록용 영상, 무대 춤을 관객이 감상하도록 재해석한 관람용 영상, 그리고 독립적인 예술 형식으로 구별된다.

기록용 영상은 무대 춤을 재공연하고 연구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기에 그 자체로는 흥미롭지 않다. 모든 무용가의 동작과 등퇴장 등을 명확히 찍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관람용 영상은 일반 대중에게 공연 실황의 생생함과 안무가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촬영 및 편집 기술을 도입해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일반적으로 공연 단체는 자체 기록 영상을 보유하되 관람용 영상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무관중 온라인 공연'이 번성하면서 관람용 영상이 중요해졌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서울세계무용축제, 서울국제댄스페스티벌 인 탱크, 세종국제무용제 등 기존 무용 축체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관람용 영상이 폭증했다. 특히 봉쇄 조치가 확산됨에 따라 영국 내셔널시어터나 러시아의 볼쇼이 극장 등이 고화질 공연 영상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화제가 됐고, 한국에서도 예술의전당이 만든 고화질 영상인 'SAC on Screen'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KO Live'나 국

립극장의 '가장 가까운 국립극장'처럼 우수작의 고품질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대 공연과는 또 다른 매력

독립적인 예술 형식의 경우 시대나 맥락에 따라 댄스필름Dancefilm·코레오시네마Choreocinema·비디오댄스Videodance·스크린댄스Screendance 등으로 불렸으며 통일된 명칭은 없다. 무대 춤이 공연자와 관객자가 모인 극장에서 발생하고 사라지는 춤이라면 댄스필름은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창작자들은 들뜬에서, 물속에서, 폐공장에서 춤췄고 현실에선 불가능한 방식으로 돌고 뛰고 굴렀다. 데렌의 <카메라를 위한 안무 습작>(1945)에선 무용가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다가 거실에서 느리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풀숲으로 착지한다. 이처럼 안무가와 시네마토그래퍼가 협업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댄스필름의 매력이다.

하지만 댄스필름은 라이브 공연이 지닌 현장감을 생생히 전달하기 어렵거나와 현란한 촬영 및 편집 기술에 밀려 움직임이 지니는 운동 감각이 지워지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무대 춤이 갖는 예측 불가능성이 없다. 그동안 안무가들이 댄스필름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안무가에게 댄스필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제한점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탐색되고 있다.

그동안 댄스필름은 축제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향유됐다. 뉴욕의 댄스필름협회 DFA가 주관해 1971년에 시작된 'Dance on Camera'를 비롯한 여러 축제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서울무용영화제와 천안춤영화제가 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무대 춤과 댄스필름 간의 경계가 흐려졌다. 기존의 춤 축체들이 온라인 상영을 병행하거나 댄스필름 섹션을 추가했고, 국립무용단, 경기아트센터, 대구시립무용단 등 무대 춤을 주로 해온 단체가 댄스필름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KO Dancefilm AtoZ'나 국립현대무용단의 'Dance on Air', 국립발레단의 'Beyond the Stage'처럼 유튜브 채널에서 댄스필름 시리즈를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Art Change Up'처럼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금도 많아졌다. 지금 활동하는 무용가 대다수가 댄스필름을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 과연 댄스필름의 융성기라 하겠다.

글 정옥희 무용연구자 | 사진 제공 국립현대무용단



마음이 글이 되는 공간

편지 가게 '글월'

편지 가게 글월은 손 편지의 가치를 기억한다. 받는 이의 안부를 묻는 일, 종이에 글씨를 새기는 일,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편지를 읽을 사람을 생각하며 무엇을 적을까 고민하는 일, 어떤 답변이 올까 기대 혹은 걱정하는 일. 편지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글월이 모두 간직하고 있다.

편지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갑니다

“글월은 ‘편지’를 뜻하는 순우리말이자, 편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서울을 기반으로 편지 가게를 운영하며, 편지와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편지 쓰기를 동시대의 문화로 만들기 위한 즐거운 시도를 함께해 주세요. 글월은 편지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갑니다.”

2019년 여름, 문주희 대표는 편지 가게 글월을 열었다. 서대문구에 있는 연화아파트의 따뜻한 분위기에 매료돼 아파트가 보이는 맞은편 건물 4층을 택했다. 1975년부터 별을 받아 바랜 연보라색의 연화아파트 외관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그는 글월의 벽을 살구색으로 칠했다.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의 계단을 올라 403호 침문을 열면 살구색 벽, 편지지를 담은 원목 서랍, 두 사람이 앉아 편지를 쓸 수 있는 의자와 책상, 그리고 창문 바깥으로 연보라색 외관의 연화아파트가 보인다. 글월이 주로 다루는 편지는 발신자 한 명이 수신자 한 명을 생각하며 쓴 손 편지다. 문주희 대표는 이전에 잡지 에디터로 일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인터뷰 기사를 정리할 때마다 인터뷰이에게 연애편지를 쓰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유명 인사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인터뷰하며 대화를 나눠도 같은 매력을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그에게는 한 사람을 위한 편지를 작성할 공간이 필요했다. 글월은 어디에도 발표하지 않는 인터뷰 편지를 작성하는 곳으로 시작했다.



인터뷰하거나
편지 쓰고 싶은 손님을 위한
의자와 책상

‘레터 서비스’가 글월이 제안한 첫 편지 서비스다. 일반인 손님이 주제를 선택하면 질문을 준비해 1시간 정도 인터뷰하고,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편지를 작성해 한 달 뒤에 보낸다. 사업자 입장에서 효율 좋은 서비스는 아니다. 녹취를 반복하고 정리하고 작성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을 하며 그는 고민했다. “나는 레터 서비스를 왜 계속하고, 이 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효율은 낮을지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가장 궁금할 사람에게 글을 주자”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고 말한다.

인터뷰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니 편지와 봉투가 필요했고, 직접 만들어 판매도 하는 글월이 됐다. 연화아파트의 바랜 연보라색을 편지와 봉투에 입히거나 편지 세트 시리즈를 구상해 대표가 직접 그린 그림을 덧댄다. 한 예로 그는 ‘과일 시리즈’의 첫 번째 과일 납작복숭아를 그려 편지 세트를 꾸몄다. 이를 위해 1년 동안 매주 일요일에 화실에서 수채 보태니컬 그림을 배웠다. 이외에도 도서·만년필·엽서·우표를 비롯해 편지와 관련된 여러 제품을 판매한다.

편지 쓰기를 동시대 문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

글월의 소개 글에 쓰여 있듯 편지 쓰기를 동시대 문화로 만들기 위한 시도는 다양했다. 1월에 새해 다짐이나 목표, 혹은 자신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을 편지에 적으면 6월에 작성자 본인에게 보내는 서비스도 있었다. 도서를 출간하고, 전시에 참여하거나, 편지 주간을 기획하고, 글월의 직접 시도는 아니지만 가수 존박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을 소개하는 영상에 촬영 장소로 제공했다. 펜팔 서비스를 신청하면 글월을 방문하는 얼굴 모르는 사람과 일대일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문주희 대표가 만든 출판사 봉투박스의 첫 책은 《조금 더 쓰면 울어버릴 것 같다, 내일 또 쓰지》이다. 글쓴이 남하의 두 딸이 부모님 결혼 27주년을 맞아 아빠 남하가 엄마 희에게 쓴 연애편지 50통을 엮어 만들었다. 글월 인스타그램에 적힌 소개 글을 그대로 옮긴다. “사랑과 애뜻함이 뚝뚝 흐르는 편지들이 그 시절의 연애를 상상하게 하고 어쩐지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나도 이처럼 편지로 마음을 남기고, 어디 우리 부모님 연애편지도 이렇까 궁금하게 만드는 귀한 기록입니다.” 이따금 공간을 방문한 많은 사람이 편지에 쓴 내밀한 글이 얼마나 무수히 오고갔을까. 문주희 대표는 글월을 열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인스타그램에 소회를 밝혔다. “편지 쓰는 일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달여 가게를 운영하니 제 상상보다 편지 쓰는 분이 여전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쓰는 것을 좋아하고 펜을 가까이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편지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많은 분과 글월에서 만났습니다. 편지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받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편지의 가치’를 사라지게 두지 않고 지키고자 합니다. 겨우 한 달이지만 여러분 덕분에 이 가게를 열기 잘했다고 느낍니다. 더울 때 오픈해 해가 짹짹할 때 맞이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4층 계단을 올라 땀 흘려 찾아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합니다. 편지 가게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겨울에도 편지 가게는 열려 있다.

편지 가게 글월

주소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0 403호 | 운영 월~토 오후 1시~6시
문의 02-333-1016 | 누리집 geulwooll.kr



오랜 상상의 물결, 고전 속으로

뮤지컬 <작은 아씨들>과 <프랑켄슈타인>

연말이 되면 좋은 책들을 여유롭게 읽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낸 시간이 아쉽게 느껴지곤 한다.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재미있는 상상을 할 기회를 놓친 셈이니까. 이런 이들을 위해 '고전'의 감동을 고스란히 담은 공연이 연말 무대를 장식한다. 뮤지컬 <작은 아씨들>과 <프랑켄슈타인>이 대표적으로, 두 작품은 고전의 변치 않는 가치와 깊이를 보여준다. 두 공연이 펼쳐는 드넓고 오랜 상상의 물결로 함께 뛰어들자.



무대가 곧 아름다운 책이 되다

<작은 아씨들> | 12. 7~26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가슴 벅찬 감동, 새로운 희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작은 아씨들>이 제격이다. 네 자매의 아름답고 눈부신 성장을 따라가면 어느새 감상자도 함께 훌쩍 커버린 느낌을 받게 된다.

원작은 미국 소설가 루이자 메이 울컷이 1968년 펴낸 동명의 소설이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0년대를 배경으로 네 자매의 성장 과정을 담고 있다. 이들은 아버지의 부재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각자의 꿈과 사랑을 키운다.

이 이야기가 가진 힘은 이미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입증됐다. 영화·연극·오페라 등으로 각색돼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다. 시어셔 로넌, 엠마 왓슨 등이 출연한 동명의 영화는 2020년 개봉해 큰 인기를 얻었다. 창작 뮤

지컬로 재탄생한 이 공연은 2020년 12월 초연을 올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라 아쉬움을 달래준다.

뮤지컬은 원작이 가진 캐릭터의 특성과 변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따뜻한 첫째 맥, 쾌활하고 진취적인 둘째 조, 수줍음 많은 셋째 베스, 현실적이면서도 아무진 막내 에이미의 개성이 한껏 부각된다. 이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자매지만 닮은 듯 다른, 다른 듯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 미소 짓게 된다.

인물이 가진 각각의 특성에 맞춰 음악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캐릭터별로 대표 넘버(삽입곡)가 부여되는데, 팝부터 발라드·왈츠·탱고까지 장르가 모두 다르다.

독특하면서도 신비로운 무대 구성도 돋보인다. 무대 전체가 곧 한 권의



책이 된다. 원작이 고전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동시에 둘째 조가 소설로 쓴 자매들의 이야기를 관객이 한 페이지씩 본다는 설정이 기도 하다. 그래서 마치 책장을 넘기듯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무대가 다락방, 맥의 집, 뉴욕, 파리 등 다양한 공간으로 바뀐다.

연출은 <레드북> <시티 오브 엔젤> <다윈 영의 악의 기원> 등 다양한 흥행작을 맡은 오경택이 맡았다. 이야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조역은 김소향과 이연경이 연기한다. 맥 역은 이해란, 베스 역은 우현아, 에이미 역은 장민제와 이재림이 캐스팅됐다.

1 뮤지컬 <작은 아씨들>의 조를 연기하는 김소향
2, 3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한 장면



인간적 고뇌와 애증, 그 심연을 파고들다

<프랑켄슈타인> | 11. 24~2022. 2. 20 |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

<프랑켄슈타인>은 고전 특유의 강렬한 메시지와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관객이 다양한 인간적 고뇌와 마주하고 감정의 심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뮤지컬의 원작은 1818년 출간된 메리 셸리의 동명 소설이다. 이 또한 영화·연극 등으로 각색돼 전 세계 무대에 올랐다.

이야기는 19세기 유럽 나폴레옹 전쟁 당시 스위스 출신의 과학자 빅터가 전쟁에서 죽지 않는 군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시작된다. 빅터는 과학·의학·철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지식을 갖춘 인물로 자신의 연구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여준다. 이 역은 민우혁·전동석·규현이 맡았다.

그러던 중 그는 신체 접합술에 능한 외과 의사 앙리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흉측한 모습의 괴물이 탄생했다. 결국 이 괴물은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되고, 괴물은 복수에 나선다. 앙리와 괴물은 모두 동일 인물이 연기한다. 박은태·카이·정택은이 1인 2역으로 소화한다. 전혀 다른 성격의 앙리와 괴물을 한 배우가 동시에 표현한다는 점이 이색적으로 다가온다.

또 작품은 빅터와 괴물의 표면적 관계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애증을 섬세하게 그린다. 빅터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 인해 고뇌를 거듭하고, 괴물 또한 그를 강렬한 애증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관객의 감정 이입을 돕는다. 음악 완성도도 높다. 강렬한 선율로 서사의 깊이를 더하고 뒷받침한다. 대표 넘버 '너의 꿈속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너의 꿈속에서'는 앙리가 예상치 못한 살인 사건에 얽힌 빅터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고, 죽음 직전에 부르는 곡이다.

<프랑켄슈타인>은 한국 창작 뮤지컬의 저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2014년 초연된 이후 많은 관객을 불러 모으며 올해로 네 번째 시즌을 맞았다. 초연 당시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뮤지컬' 등 총 아홉 개 부문을 수상했다. 2018년 인터파크 발표에 따르면 한 작품을 반복해서 보는 '회전문 관객'이 가장 많이 찾은 대극장 뮤지컬 1위에 올랐다. K-뮤지컬 열풍의 시초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 작품은 2017년 일본 대형 제작사 도호 프로덕션을 통해 현지에서 라이선스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한국 창작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글 김희경 <한국경제신문> 기자 | 사진 제공 서울시뮤지컬단, 뉴컨텐츠컴퍼니



박수근·김환기, 기다리고 그린다

전시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과
<김환기, 그·리·다·D·R·A·W>

박수근과 김환기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다. 둘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한국의 근현대사를 겪었다. 같은 시대에도 예술의 방향은 달랐다. 그들의 삶을 따라가며 두 사람 작품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겨울부터 봄까지 미술관에서 수근대는 그림들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 | 11. 11~2022. 3. 1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한국인이 사랑하는 화가라지만 ‘가난했지만 이웃을 사랑한 화가’ 정도로만 박수근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는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은 미술관 개관 후 처음 선보이는 박수근 개인전으로,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과 유족 연구자 소장자의 협조로 열린 대규모 회고전이기도 하다. 유화·수채화·드로잉·삽화 등 모두 163점이 전시돼 역대 최다인 데다 이 중 ‘노인들의 대화’ ‘소녀’ 등 유화 7점과 삽화 12점은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박수근의 초기작과 수집품이 포함된 전시 1부는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그의 면면을 보여준다. 그는 부친의 사업 실패로 보통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화가의 길을 걸었다. 12살 무렵 책에서 본 밀레의 ‘만종’에 감동한 박수근은 직접 밀레 화집을 만들었다. 빈센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의 화집도 수집했다. ‘철쭉’ ‘겨울 풍경’ 등 초기작을 보면 인상주의 화풍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펜화·판화·프로타주 등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도 그를 대변하는 단순성, 흑백 대비와 같은 회화 양식을 다듬어갔다.

전성기는 1953년부터 1963년까지다. 박수근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살던 10년간이다. 1950년 평양에서 결혼한 박수근은 6·25전쟁이 터지자 남하했고, 2년 뒤인 1952년에야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는 미군 PX에서 초상화가로 일하며 돈을 모아 1953년 창신동 집을 마련한다. 때마침 같은 해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집’으로 특선을 수상하며 그는 점차 이름을 알린다. 이 기간을 아우르는 전시 2부와 3부에서는 그의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다. ‘길가에서’ ‘나무와 두 여인’ 등은 전람회 출품작이라 판매용 그림에 비해 구도가 매우 안정적이고 크다.

이 무렵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들도 박수근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 개인전을 준비하던 중 급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돼 1965년 타계한다. 4부에 전시된 후기작을 찬찬히 살펴보면 회백색뿐 아니라 1950년대 중반부터 여러 겹 사이에 파스텔톤을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짧은 생이지만 작품에 열성을 다했던 박수근이기에 비로소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라 칭해진다는 걸 깨닫는다.

1 박수근 ‘고목과 여인’(캔버스에 유채, 45×38cm, 1960년대 전반기, 리움미술관 소장)

2 <김환기, 그·리·다·D·R·A·W> 전시 전경



2

뉴욕에서 김환기가 본 하늘

〈김환기, 그·리·다·D·R·A·W〉 | 9. 28~12. 31 | 환기미술관

김환기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견인하는 화가다. 이 명성은 그의 끊임없는 도전으로부터 나왔다. 김환기의 생애를 편의상 구분하면 넷으로 나누어진다. 일본 유학 시절(1931~1937), 서울대·홍익대 교수 시절(1938~1951, 1959~1963), 파리 시절(1956~1959), 뉴욕 시절(1963~1974)이다.

환기미술관에서 열린 〈김환기, 그·리·다·D·R·A·W〉 전시는 그가 가장 오랜 기간 해외 체류했던 뉴욕 시절을 다룬다. 그가 작고하기까지만든 유화·드로잉·오브제 등 총 170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1959년부터 홍익대 미술대 학장을 맡은 그는 현실적인 직위에 만족하지 않고 1963년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가한 뒤 세계 화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뉴욕으로 향했다.

현재 미술 시장에서 열광하는 김환기의 전면 점화(全面點畫)는 이때 탄생한다. 전시장 1층 중앙에는 작품 '13-IV-73 #311'이 놓여 있다. 가로 101cm 세로 150cm인 작품이지만, 공간감이 가득하다. "내가 그리는

선, 하늘 끝에 더 갔을까. 내가 찍는 점, 저 총총히 빛나는 별만큼이나 했을까." 김환기의 일기 구절을 전시장 벽면에 새기고, 그림 선에 맞춰 도색한 덕택일 테다. 그 옆에 놓인 드로잉은 그가 점과 선을 사용해 수많은 조형 실험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점은 무엇인가. 김환기는 생전 일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린다. 생각한다면 친구들, 그것도 죽어버린 친구들,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친구들 생각뿐"이라고 했다. 주변인을 살뜰히 챙기던 김환기가 10년 넘게 뉴욕에서 고독의 시간을 거치며 나온 결과가 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시장에 놓인 'Air and Sound I, 2-X-73 #321' '16-IX-73 #318' 등의 완결성에 감탄하다가도 먹먹해진다.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작 '07-VII-741'에 남은 연필선을 보면 더더욱 말이다.

감정의 고조를 돕는 음악도 이번 전시의 특징 중 하나다. 1~3층 전시 공간에는 조용욱 작가의 음향이 퍼지는데, 음의 전개에 따라 같은 작품 앞에서 시시각각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미술관은 추후 도록에 음향 QR코드를 첨부할 예정이다.

글 김태연 <동아일보> 기자 |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환기미술관



사람들이 사는 곳 생신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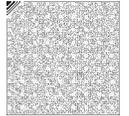
성산동은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지루하지 않은 곳이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와 그만큼 오래된
 커다란 가로수들, 공원, 시장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늘 가득하다.
 어른들이 일하러 떠난 낮의 성산동엔
 골목마다 아이들이 왁자지껄 부산하다.
 내 기억 속 햇살이 가장 예쁜 동네 중 하나.
 유명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알게 해준 성산동은 걷기에 아주 좋은 동네다.

글·그림 반지수 일러스트레이터

배치되는 욕망을 넘어서

문화 향유자에게 2021년이란





어느덧 2021년 한 해도 저물어간다. 올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최대한 '비대면'으로 해낼 것이냐에 필사적 노력을 기울인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 글쓰기 모임, 독서 모임, 인문학 강연, 직장 근무 등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도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내가 일종의 문화 제공자로서 하는 역할이 있었다면 거의 90% 이상은 비대면으로 했던 셈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문화 향유자로서도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대면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됐다.

구독의 늪

올해 내게 비대면 문화 소비를 상징하는 일은 '넷플릭스 구독'이었다.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탓이기도 했지만, 영화관을 찾는 일이 부쩍 줄어들면서 집에서 누릴 콘텐츠가 필요했다. 그렇게 '남들 다 본다'는 넷플릭스를 구독했고, 몇 년 만에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정주행한다든지, 한국 드라마·다큐멘터리·영화 등을 매일같이 찾아봤다.

철학자 들뢰즈가 지적했듯이, 욕망은 '배치'에 따른다. 나와 문화 향유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 '배치'되자, 나는 그곳에 있는 콘텐츠를 따라 시간을 소비하게 됐다. 넷플릭스가 추천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에 대한 욕망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한 해의 상당 부분이 그런 문화 향유로 채워졌다.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성공만 하더라도 넷플릭스 플랫폼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그런 성공은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견해이기도 하다.

결국 코로나 시대, 그중 한 해의 경험은 그 자체로 문화 향유자에게 하나의 거대한 '배치'가 된다. 나아가 이런 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일상생활 전반을 규정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연·전시·강연 공간 등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 일련의 문화가 몰락에 가까운 위기를 겪기도 한다. 그럴 때면 문화 향유자로서 나의 위치란, 결국 전체 배치도에 따른 획일적인 하나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새로운 길을 찾는 주체적 여행

그런데 사실 내가 '문화 제공자'로서 필사적으로 다른 방식을 찾았던 것처럼, '문화 향유자'로서도 더 주체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올해 초, 한 강연 업체와 이야기하면서 인문학 강연이 코로나 이후 거의 80% 이상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 주변의 작가들도 사실상 생계를 강연료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2년여는 "강의가 써가 말랐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다. 그럴 때, 나는 홀로 SNS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강연과 낭독회, 모임을 비대면으로 이어가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오히려 지역에 갇히지 않고 전 세계의 무수한 사람을 비대면으로 만나게 됐다.

마찬가지로 문화를 향유하는 입장에서도, 필사적으로 나를 풍요롭게 해줄 문화를 더 명확하게 찾아나갈 의지가 필요했을 것 같다. 너무나 자

연스럽게 배치돼 드러누워 리모컨을 누르며 고정된 나의 그 자세는 동시에 나의 정신과 경험을 지배해 버린다.

그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자리를 옮기면 나는 책장 앞에 '배치'된다. 적어도 내가 느낄 때 책장 앞을 거니는 경험은 TV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주체적이다. 책장의 책들을 살펴보고 기억과 기대를 되짚고, 더욱 차분하게 나의 시간을 결정할 권한이 내게 주어진 느낌을 받는다. 혹은 인터넷을 열어 나의 시간을 달리 채울 방법에 대해 '검색'한다. 검색 기술에 따라, 단순히 노출되는 것들의 '배치'에 종속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서핑'을 해볼 수도 있다.

어차피 인간의 욕망이란 어느 정도 배치되는 것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해에는 내가 더욱 주체적으로 문화를 찾아나서는 문화 향유자의 위치를 되찾고 싶다. 무기력이든 코로나 블루든 떨쳐내고, 그것이 방구석 여행이든, 저 바깥 세상을 거니는 워드 코로나의 여행이든, 더욱 의욕 넘치는 문화 향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주체적인 문화 향유자들이 우리 사회도, 문화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것이라 믿는다.

글 정지우 문화평론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저자

단지 내외를 매개하는 출입구

서울의 현대를 찾아서: 아파트 '아케이드'가 빚어내는 도시경관



사진①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노선상가



사진② 반포주공1단지아파트 단층 상가의 쇠락한 모습



사진③ 방배삼호아파트상가의 입면



사진④ 강남 최초의 12층 아파트인 방배삼호아파트 전경



서울 길거리에서 2~5층 규모의 아파트 상가 건물을 종종 만난다. 서울에 처음으로 아파트 단지(마포아파트, 1962)가 생겨나고 60년이 흐르면서, 아파트 상가의 규모와 생김새, 업태 또한 시대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했다.

한강맨션아파트(1970년 입주), 여의도시범아파트(1971년 입주)와 같이 중상류층이 타깃인 초창기 아파트 상가들은 현대 도시 문명을 이끄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소비 공간으로 널리 인식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이후 대한주택공사가 서민을 위한 주공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민간 건설사들도 다양한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점차 아파트 상가는 재래시장, 혹은 마을 상점이 역할을 대신하는 상업 공간으로서 서울 전역에 퍼져나갔다. 20세기의 아파트 상가는 많은 경우 대로에 면한 회랑(回廊) 혹은 노선상가(路線商街) 형태를 띠었는데, 여기서 유래해 '아케이드(Arcade)'가 아파트 상가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잠실시영아파트(1976년 입주) 건립 당시 상가동을 '아케이드 건물'로 지칭한 것이 대표 사례이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밀집된 주택가와 달리, 담벼락으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하게 규정되는 현대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상가는 단지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와 교류의 공간으로 기능했다. 지난 세기의 아파트 상가는 과연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준공 당시의 잔영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상가를 통해 들여다보자.

아파트 상가가 단지 외부와 내부를 잇다

(사진①) 서초구 반포본동, 반포주공1단지아파트의 상가는 현존하는 아파트 상가 중에 아마도 가장 거대한 규모일 것이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삼거리를 중심으로 신반포로를 양쪽에서 감싸듯이 조성된 이 상가는 고속터미널 상권이 지금처럼 융성하기 이전에 '강남구 반포동'을 대표하는 중산층의 쇼핑 공간으로 기능했다. 3층 상가와 단층 상가가 혼재된 구성 또한 흥미롭다. 외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경비 초소가 존재하지만, 만약 상가를 도보로 방문한다면 특별한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 없이 아파트 단지 내부를 자연스럽게 거닐 수 있다. 아파트 단지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2020년대의 감각으로 이렇게까지 외부인에게 개방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1973년에 첫 입주가 시작돼 반세기에 이르는 역사를 눈앞에 둔 반포주공1단지이지만, 아쉽게도 올해 말로 이주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월 시점에 이미 많은 점포가 떠났으며, 단층 상가의 경우 아마도 과거에는 번성했을 중복도 형식의 아케이드가 이제는 창고나 다름없는 상태로 전락한 상황이다(사진②). 재건축 아파트에 조성될 근린생활시설은 입주민을 위한 소위 '프리미엄' 시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금과 같이 치킨집·빵집·보습학원·게임가게·카센터·약국 등이 오밀조밀하게 늘어난 풍경은 아마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사진③)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의 노선상가는 아케이드의 '정석'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모범 사례와도 같다. 1976년 4월에 준공된 이 아파트의 노선상가는 3년 전에 지어진 반포주공1단지의 상가보다 건축적으로 한층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아치가 반복되는 외관

과 외부로 노출된 2층의 통로는 대만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목격할 수 있는 식민지 건축을 연상케 한다. 방배삼호아파트는 서울 한강 이남에 최초로 조성된 고층 아파트 단지였던 만큼, 아파트 상가에도 상당히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사진④). 신반포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한적한 방배로에 면하고 있기 때문인지, 입점 업체 중에는 한 칸짜리 슈퍼마켓이 존재하는 등 반포주공1단지아파트의 상가보다 조금 더 근린주민에 친화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지금은 많이 쇠퇴했으나, 1990년대까지 '카페골목'으로 유명했던 방배동답게 방배삼호아파트 상가의 저층부에는 각각각색의 카페가 입점해 강남의 관광지 기능을 하기도 했다. 반포주공1단지아파트와 달리, 이 아파트는 재건축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 높은 확률로 준공 50주년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아파트 상가 모습은 어떻게

최근에 지어지는 신축 혹은 재건축 아파트 상가는 대로변의 노선상가 형태에서 탈피해 아파트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상가는 여전히 '플라자' '스퀘어'라는 이름을 내걸고는 있지만, 더는 내외부에 공평하게 열려 있는 '아케이드'가 아니게 됐다.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더 높은 부동산 가치 형성을 지향하는 지금, 다음 60년의 아파트 상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까. 갈수록 단절과 분화가 심화되는 서울의 도시 공간을 치유할 수단으로서, 머지않은 미래에 아파트 상가가 단지 바깥과 내부를 매개하는 공간으로 회귀하기를 기대해 본다.

글·사진 김영준 도쿄대학 공학계연구과 도시공학전공 박사 과정, 인스타그램 @서울의현대를찾아서 운영자



쓸쓸해서 쌀쌀한 그, 삶

임대형 감독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평범한 사람에게 찾아온 어둡한 비극은 그리 극적이지 않게, 그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연하게 일상의 옆자리에 앉는다. 휘청대는 배경음악 없이 삶이라는 롱테이크 안으로 속 들어온 비극은 느리고 더딘, 그 단단한 일상을 뒤흔들 힘이 없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극적 변화 하나 없이 태연하게 찾아온 밤에는 혼자 뒤척이다 잠들고, 염치없이 또 해가 뜨면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야 한다. 그래도 비극이 내려앉은 삶은 어제보다 조금 더 씩씩하고 쓸쓸하다.

쓸쓸한 사람

작은 마을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모금산(기주봉)은 서울로 영화 공부하러 간 아들 스테반(오정환)을 불러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내민다. 배우가 되고 싶었던 오랜 꿈을 이루고 싶으니 자신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찍어달라 한다. 아들의 여자 친구 예원(고원희)은 금산이 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고 스테반을 도와 영화를 찍는다. 그리고 초청장을 받은 지인들이 모인 상영회가 크리스마스에 열린다.

임대형 감독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는 자신에게 찾아온 비극적 소식 앞에서 포악하지 않고, 묵묵하게 동행하는 한 중년 남자의 시간을 체험하는 영화다. 세상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지만 모금산은 여전히 이발소를 운영하고 마을 사람들과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동네 치킨 집에서 벽을 바라보며 술을 마신다. 금산에게 찾아온 나쁜 소식에도 그의 평범한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비극을 이야기하지만 극적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담은 이 흑백영화는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시골 이발소의 풍경처럼 정서적으로 과거를 향한다. 죽음에 가까운 병에 걸렸지만 영화 속 모금산은 찰리 채플린을 연기

하며 삶을 갈망하기보다 삶을 관조한다. 그래서 과거로 열린 금산의 시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아련하고 아득한 느낌을 준다.

일상·계획·여행·작별·성탄절 다섯 개의 챕터가 모금산의 일상과 아주 특별한 영화 촬영 시간을 동시에 품는다. 특별함 없는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주 특별한 개인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개인에게는 우주보다 더 큰 기억을 편지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임대형 감독의 <윤희에게>를 보고 위안을 얻은 관객이라면 그의 앞선 겨울 이야기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를 되짚어 봐도 좋겠다.

쓸쓸한 삶

모금산은 그리워지는 기억과 과거에 묻은 진심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쓸쓸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공이 된 영화를 찍게 만들지만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려는 것은 아니다. 그는 영화를 찍는 동안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리고 영성하지만 간절한 영화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기억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금산의 주위에는 평범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

동을 하는 인물이 꽤 여럿 등장한다. 임대형 감독은 그냥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까슬거리는 마음의 각질을 굳이 벗겨내려 하지 않는다. 깨진 향아리건 주둥이가 좁은 향아리건 사람은 모두 제 삶의 그릇을 가지고 있고, 깨진 삶도 그저 삶이라는 사실을 긍정한다.

살다 보면 이정표를 따라 잘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있다. 그러다 잠깐 멈춰서 뿐인데, 대체 어느 길 위에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사람들은 나침반을 내밀며 이제라도 제 길을 찾으라고 한다. 그런데 길을 떠난 시작부터 나침반을 읽을 줄 모르는 길치인 그는 더 걸지 않기로 한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등지고 내가 걸어온 길을 바라보며 있겠다는 모금산의 이야기가 참 쓸쓸해서 씩씩하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2017)

감독 임대형

출연 기주봉(모금산 역), 오정환(스테반 역), 고원희(예원 역), 전여빈(자영 역)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 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아팠고, 어른들은 나뻐다> 등이 있다.

2064 환상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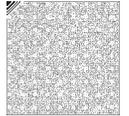
2021.12.10. - 12.19. 금호 알베르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

약속의
땅
으로
가는 길

연안
시민의
재단





Webzin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sfac.or.kr/literature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sfac.or.kr/theate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sfac.or.kr/dance



쓰기의 매혹과 괴로움

우리(나)(내)(너)

가(는)(를)(와)(의)

어디(여기)(저기)(멀리)(무엇)

에(로)(든)(를)

있든(서성이든)(머무르든)(대해서든)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2021. 11.

웹진 [비유] 47호 포스터

비평 특집으로 꾸려진 웹진 [비유] 47호에는 강수환·강희정·박서양·성현아·이연숙·최가은 평론가의 글이 실렸다.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주어진 지면에 비평가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자유로워 재미있다. 강수환 평론가는 대학에서 비평을 강의한 경험을 통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매체 시대의 비평을 진단한다. 그리고 한국문학장 내의 전통 비평이 사유해야 할 문제를 짚는다. 박서양 평론가의 글도 흥미롭다. 그는 지난 7월 '문장웹진'에 발표한 자신의 글을 이어 쓴다. 마감일에 맞춰 글을 마무리하면 뒤늦게 찾아오는 "마감 이후"의 가능성을 이번 지면을 통해 실험하고자 한 것이다. 강희정·성현아 평론가는 비평이 있어야 할 '자리'를 물음으로써 비평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다. 최가은 평론가는 비평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문단의 구조 문제를 짚어본다. 이들의 사유를 따라가며 진지함에 놀라고 유연함에 감탄할 줄 알았지만 때때로 웃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특히 이연숙 평론가의 글을 즐겁게 읽었다.



“나는 내 ‘일’이라는 것이 내게 있어 거의 유일하게 의미를 가지는 존재임을 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의 유용성과 효용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도 안다.”

이연숙 <막간 intermission> 부분

최근 문학 팟캐스트를 통해 추천받아 프레드리크 세베리의 《파리뎃》을 읽고 있다. 스웨덴의 한 섬에서 파리를 연구하는 학자의 에세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나는 자주 웃는데 이런 대목 때문이다. “우리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 나는 당연하게도 글을 쓴다고 말했는데 섬에 사는 모든 여자들이 내 아내를 너무 딱하게 여겨 그다음부터는 생물학자라고 내세우고 다녔다. 그게 그렇게 됐다.” 파리를 채집하고 관찰하고 관련 논문을 읽는 것이 프레드리크 세베리의 본업일 터인데, 아무리 봐도 그에게 있어 거의 유일하게 의미를 갖는 저 일들이 그와 아내를 먹여 살릴 것 같지는 않다. 글쓰기 노동은 고정 수입도 기대하기 힘들지만 노동 가치가 돈으로 잘 환원되지도 않는다. 실제로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글쓰기와 관련된 일에 바쳐야 한다. 평론가는 파리 대신 문학을 연구할 뿐이므로 이연숙을 읽으며 《파리뎃》의 문장을 떠올린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불행하게도 글 쓰는 일에 의지해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작가들은 강의를 하거나 기관에 사업을 신청한다. (프레드리크 세베리 역시 위 인용한 문장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풍요로운 자연환경으로 널리 알려진 섬에 사는 생물학자라면 시시때때로 멧덩구리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감수해야 한다. 그네들도 나를 같은 부류로 여기는 것 같다.” 여기서 ‘멧덩구리들’이란 허술하고 허황된 생각으로 국가에서 사업 지원금을 얻어보려는 다른 학자들을 말한다.) 이연숙 평론가 역시 지원 사업을 통해 글 쓰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듯하다. 글 쓰는 일,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일에 돈 버는 일이 더해진 삶. 이에 관한 이연숙의 체념적(?) 자기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이제 나는 나의 쾌락이, 곧 성과에 대한 집착과 중독적 자기 착취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성과사회의 부드러운 ‘제안’-‘할 수 있음’을 계속할 수 있는 주체이든, 또는 ‘할 수 있음’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주체이든 간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우리 내부의 ‘정신적 탈진’이자 ‘몰락’임은 자명한 사실이자,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진실이다.

이연숙 <막간 intermission> 부분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어쩌나 어려운지.” 단지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춰야 하는 순간에도 성과사회에 길든 글쓰기 노동자는 자기 앞에 놓인 일을 계속한다. 직업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지리멸렬하고 관료주의적인 잡무로 인해 정말로 탈진하기 전까지 말이다. 돌봄도 사랑도 모르겠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저 지루하고만 싶다”는 그의 문장을 읽을 때 내 속을 들킨 것만 같아서 즐겁게 피식거리며 읽는 중에 한숨을 쉬고 말았다. 그가 말하는 저 괴로움이 자기를 돌보는 데 실패해 왔다는 고백으로 들려서 함께 마음이 아팠다.

연극人n

제1강: $x=2y$ 인 두 자연수 x 와 y 의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극단 Y <제1강: 거절하는 방법>

마음을 주고받는 방법: 열일곱

<제1강: 거절하는 방법>은 서른네 살의 네 사람, 리아·현·미소·선주가 열일곱 살의 자신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됐다. 여자 좋아한다고 학교에 소문난 리아, 자기 페이스를 찾기 위해 언제나 달리는 현, 이름처럼 미소 짓기가 싫어 언제나 웃긴 표정을 짓는 미소, 공부는 잘하지만 학교에선 친구가 없는 선주. 어느 날 운동장을 달리던 현에게 리아가 반한 것을 시작으로 네 명의 여성 청소년은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하기 시작한다.

네 명의 여성 청소년은 어떤 유형에 갇히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무대 위를 뛰어다닌다. 친구와 가족·학교를 넘어서 세상을 상상하기 힘든 청소년 시기를 섬세하게 재현한 이 작품은, 그럼에도 결코 작지 않은 세계를 보여준다. 청소년의 귀여움과 그들을 둘러싼 소문은 폭력적이고, 어른들의 태도는 그들을 미묘하게 괴롭힌다. 여성-청소년이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을 가진 이들의 거절은 온전한 거절이 되지 못하고, 말은 힘을 갖지 못한다. 극단 Y는 이전 작품에서 그랬듯 이 작품에서도 여성 청소년을 대상화하지 않은 채 그들의 존재를 보여준다. 리아는 성폭력의,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2차 가해의 피해자이지만 작품은 그를 피해자성에 가두지 않는다. 실컷 울게 하고 자책하게 한 후 다시 일어서게 한다. 작품은 그들이 가진 겹겹의 정체성 가운데 어느 것을 부각하거나 부정하지 않은 채 다만 존재하게 한다. 그들은 그들이다. 피해자일 수도, 전사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는 채로 그들이다. 열일곱 살의 그들이 '거절'을 배우는 것은 이 연극의 핵심 지점이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은 평생에 걸쳐 배워나가야 하는 일이지만, '내' 마음 같지 않은 남의 마음, 아니 때로는 '내 마음' 같지도 않은 '내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아무래도 녹록지 않다. 단호한 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관계는 허락만큼이나 많은 거절로 이뤄져 있다. 열일곱 살의 친구들은 그것을 배워나간다. 그들의 강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허락하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나'는, 그리고 친구들은 서로 진심을 주고받는 것으로 관계의 첫걸음을 뗀다. 거절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님을, 거절이 남을 상처 주는 것과 언제나 같지 않음을 열일곱 살에 배워야 했다.



연극
(제1강: 거절하는 방법) 중

모두는 위로를 위해: 서른넷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잘하고 있어” 왜 아무도 넷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세상은 유난히 각박한 것 같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것 같다. 다른 모두가 그렇듯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데, 부족함은 이해받지 못한다. 스스로에게도 그렇다. 서른네 살, 이제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스스로를 조금 더 받아들이게 된 넷은 과거의 ‘나’를 위로하고 싶다. 미숙한 열일곱살 ‘네’가 자라 여전히 미숙한 서른네살 ‘내가’ 됐지만, 더 자라 또 다른 미숙한 ‘내가’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탓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보면 인간의 존재란 참 성가시고 복잡하다. 육체적 성장이 완성되는 시기가 너무 느려 오랜 시간 타인에게 의존해 살아가야 한다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육체적 성장의 완성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의 완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모든 이야기는 성장 서사다”라는 말마저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특히 그 삶의 서사화에) 성장은 중요하다. 완벽한 사람이나 인간의 완성이란 없으니 현재 시점의 ‘나’는 여전히 과정이고, 지금 나이의 두 배쯤 나이 먹고 나면 이것보다 더 나은 어른이 될지 모른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할 수 있고, 내일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로 괜찮을까?

성장 담론은 확장되고 있다. 부모도 처음이고, 70대도 처음이고, 아무튼 모든 것이 다 처음이다. 이 ‘처음임’을 부정하거나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어른이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자라는 중’ ‘성장하는 중’이라는 말을 끝없이 사용하는 사이에, 무언가가 그 틈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신이라는 말, 성장하고 있다는 말로 무엇을 유예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과거를 위로하는 일로 우리가 어떤 현재를 유보·용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돌아보는 동시에 자신의 무지와 무례를 훑아볼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극단 Y <제1강: 거절하는 방법>

일자 2021. 10. 14~24

장소 나온씨어터

작·연출 강윤지

출연 강서희·백혜경·강다현·배선희

조연출 이수림 PD 최샘이

조명 홍유진 음향 목소

사진·그래픽 박태양

글 장지영 드라마투르그.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많다. july2413@naver.com | 사진 제공 ©이미지 작업장_박태양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춤·여기

살고, 사유하고, 놀이하는 춤

김형민 안무가 & 벤야민 셰일리커 조명디자이너

Q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형민(이하 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이고, 예술 작업을 하며 교육도 하고 있는 김형민입니다.

벤야민 셰일리커(이하 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조명디자이너 벤야민 셰일리커 Benjamin Schalike입니다. 공연 및 페스티벌에서 기술 감독으로도 활동했고, 1996년 베를린 탄츠타게 페스티벌 Tanztage Berlin 창설 멤버이기도 합니다.

Q 이곳은 어디인가요?

김 이곳은 저와 남편, 그리고 한나가 함께 즐기는 공간이에요. 한나는 친구들과 놀이기구를 타며 뛰어놀고, 저와 남편은 한나와 놀거나 벤치에서 가만히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죠.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곳이 적절한 공간이에요. 가르치는 것에 딜레마를 느꼈을 때도 이곳에서 벤야민과 이야기하며 고민을 해결하죠.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는 피곤해서 바로 자거든요. (웃음) 물론 여기서의 시간 대부분은 아이와 함께 놀면서 보내요. 아이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노는 활동으로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와 놀아주면 안 되고 함께 놀아야 해요. 그렇게 놀다 보면 가지고 있던 고민도 잊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나죠. 여러모로 저에게는 굉장히 영양가 있는 공간이에요.

벤 이곳은 제 딸과 함께 뛰어노는 곳이에요. 이번 주에는 저와 같은 나이의 아빠를 우연히 만나기도 했고요. (웃음) 이곳의 멋진 풍경도 마음에 들어요.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저 자신과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특히 벤치에 앉으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 의자'랄까요. (웃음)

Q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벤 이곳은 딸 한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일상적 움직임과 빛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다양한 감정과 아이디어를 느끼고 새로운 영감을 받기도 해요. 이곳을 둘러싼 색도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참 좋아요. 사방이 보이니까, 고민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도 괜찮죠.

김 제 작업을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이와 놀 때의 몸이 모두 달라요. 한나와 놀 때는 기본적으로 원초적 움직임을 많이 만들어보는데, 그러다 보면 작업의 영감이 생기고 움직임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곳을 자연이 둘러싸고 있다 보니 더욱 그런 것 같고요. 교수가 된 지 벌써 2년이 됐는데, 가르치는 게 아직도 약간 어려워요. 학생들을 예술적 독립체로 대하고 싶기도 한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죠. 그렇게 학생들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곳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곤 해요. 여기,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요. (웃음)

취재·정리 김연임 웹진 [춤·in]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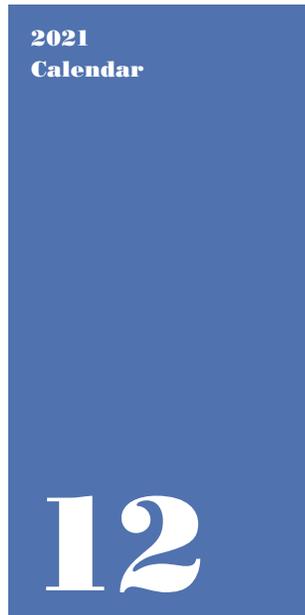
김형민 안무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독일에서 독립예술가로 활동했으며, 2020년부터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움직임을 중심 언어로 작업하고 있으며 예술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업과 그 과정을 통해 열리는 관계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벤야민 셰일리커 조명디자이너 독일에서 태어나 조명디자이너로 살아오다 최근 한국에서 작업하고 있다. 무대 위의 긴장이 변화하는 순간을 불균일한 빛을 통해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공연자가 밝은 빛 아래 있지 않을지라도, 공연자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고 작업한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on	Tue	Wed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 <가시리> ● 공연 <양준모의 오페라 데이트> ● 공연 <최예인 피아노 독주회> ● 공연 <바리톤 유진호 독창회> ● 공연 <굿모닝 가곡 앙코르>(~12. 2) ● 무용 <신체 파동 소리>(~12. 2) ● 연극 <달래장>(~12. 5) ● 뮤지컬 <달나라 여행 가이드>(~12. 12) ● 연극 <찬스>(~12. 31) ● 연극 <뚜껑 없는 열차>(~2022. 1. 2)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김주연 피아노 독주회> ● 공연 <이화스튜디오 소사이어티 스테이지>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팔무전>(~12. 7) ● 연극 <이별대행업체>(~12. 12) ● 뮤지컬 <작은 아씨들>(~12. 26) ● 연극 <안나 카레니나와의 대화>(~2022. 1. 2)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 <해녀탐정 홍실록> ● 연극 <검둥이>(~12. 19) ● 연극 <최종면접>(~2022. 1. 1) ● 전시 <Blossom>(~12. 8)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클라라 주미강 리사이틀>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2021 대한민국 영화음악 페스티벌> ● 무용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12. 26) ● 연극 <로테르담>(~12. 3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 <양반가> ● 뮤지컬 <2021 베리메리 지구데이>(~12. 16) ● 무용 <호두까기 인형>(~12. 16) ● 연극 <2인실×무간도>(~12. 26) ● 연극 <드보르작>(~12. 2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숙희의 비밀>(~12. 30) ● 행사 <2021 공동창작워크숍 결과 공유회>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언더스터디>(~2022. 2. 27) ● 공연 <이인지 피아노 독주회>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세종대왕의 눈물> ● 전시 <게티이미지 사진전>(~2022. 3. 27)
27	28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김태은 바이올린 독주회> ● 무용 <굿.마른오구> ● 공연 <신혜영 피아노 독주회> ● 전시 <Mindfulness>(~12. 29)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서울예술교육센터
- 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Thu	Fri	Sat	Sun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 ● 연극 <인사할게요, 마하마씨>(~12. 5) ● 연극 <틴테이블>(~12. 5) ● 공연 <라 트라비아타>(~12. 5) ● 연극 <옥상 위 카우보이>(~12. 12) ● 연극 <개미굴>(~12. 12) ● 연극 <월드다방>(~12. 19) ● 연극 <꽃은 사절합니다>(~12. 31) ● 뮤지컬 <난타>(~12. 31)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홀춤 II>(~12. 4) ● 연극 <뿔>(~12. 5) ● 뮤지컬 <우리가 사랑했던 그날>(~12. 5) ● 연극 <개가 된 남자>(~12. 5) ● 뮤지컬 <힘을 내요 그대>(~12. 5) ● 연극 <알마게스트>(~12. 12) ● 무용 <겨울 나그네, 구두점의 나라에서>(~12. 12) ● 전시 <로이 리히텐슈타인展-눈물의 향기>(~2022. 4. 3)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이체아 피아노 독주회> ● 공연 <홍의연 바이올린 독주회> ● 무용 <리틀엔젤스예술단 정기공연> ● 연극 <전태일>(~12. 8) ● 뮤지컬 <스노우 데이>(~12. 31) ● 전시 <필립 할스만: 점핑 어게인>(~2022. 4. 3)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V 에버 애프터>(~12. 5) ● 뮤지컬 <미인>(~12. 5) ● 연극 <리어왕>(~12. 5) ● 연극 <양자전쟁>(~12. 5) ● 연극 <흑백다방>(~12. 5) ● 연극 <미스터 보쟁글스>(~12. 5) ● 전시 <M&M's>(~12. 5) ● 전시 <21세기 회화전>(~12. 5) ● 전시 <따뜻한 휴일의 기록>(~12. 5)
<p>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박요셉 피아노 독주회> ● 무용 <제10회 NDA 국제무용페스티벌>(~12. 10) ● 뮤지컬 <내가 없는 세상>(~12. 19) ● 전시 <빈랑시스檳榔西施>(~2022. 1. 8)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네 손을 위한 판타지> ● 국악 <깃>(~12. 11) ● 뮤지컬 <문준경>(~12. 19) ● 연극 <향수>(~12. 19) ● 뮤지컬 <더 데빌>(~2022. 2. 27) ● 뮤지컬 <팬레터>(~2022. 3. 20) ● 2021 뉴 아트마켓 <예술거래소 포럼> ● 전시 <2064 환상로켓>(~12. 19)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할아버지> ● 공연 <2021 윈터클래식> ● 공연 <그림읽어주는 베토벤-마네 & 모네> ● 공연 <크리스마스 지브리 탭고> ● 공연 <Winter 후하 쇼케이스> ● 뮤지컬 <세계 문명 탐험대>(~2022. 1. 23) ● 전시 <Okui [학교]_사람은 무엇을 배우나>(~12. 11)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허재원 피아노 리사이틀> ● 공연 <우효정 바이올린 독주회> ● 공연 <이준영 피아노 독주회> ● 연극 <사찰을 전하는 아이>(~12. 19) ● 연극 <환상동화>(~2022. 2. 12) ● 전시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12. 12) ● 전시 <LAUDA>(~12. 12)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2021 송년음악회> ● 공연 <사계> ● 공연 <모던 걸 나, 해석> ● 연극 <구두쇠 스크루지>(~12. 26)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바당가자> ● 공연 <크리스마스 인 러시아> ● 국악 <블랙스트링 콘서트> ● 무용 <바디콘서트>(~12. 19) ● 연극 <데미안 비더게부르트>(~12. 25) ● 공연 <명색이 아프레겔>(~12. 31)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겨울이야기> ● 국악 <송년 판소리> ● 무용 <드래곤즈> ● 뮤지컬 <레이디버그>(~12. 19) ● 뮤지컬 <검쟁이 빌리>(~12. 31) ● 전시 <과야: 태도에 대하여>(~2022. 1. 15) ● 전시 <호 위에 선>(~12. 18) ● 전시 <Maybe it's like that>(~12. 18)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렛 미 체인지 유어 네임> ● 공연 <박건우 첼로 독주회>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악 <HEY STRING: For humans> ● 공연 <윈터 콘서트>(~12. 24)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용 <거시기 모놀로그> ● 연극 <천경자천경자>(~2022. 1. 9)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 무용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 공연 <조수미 & 이무지치 실내악단>(~12. 26) ● 뮤지컬 <엄마까투리>(~2022. 1. 30)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민효인 이경화 피아노 콘서트>
<p>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커티콜> ● 공연 <올 댓 클래식즈의 윈터 윈더랜드> 	<p>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칸딘스키, 말레비치 &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의 예술展>(~2022. 4. 17) ● 전시 <김환기, 그·리·다·R·A·W>(~12. 31) ● 전시 <천경자: 영원한 나르시스트>(~12. 31) ● 공연 <어쿠스틱 위드 메썸드 2021> 		



전시 <Okul [학교]_사람은 무엇을 배우나>

함양아 작가는 국가와 사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작품에 담아왔다. <Okul [학교]_사람은 무엇을 배우나>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영상과 이미지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일시 11월 4일(목)~12월 11일(토) 화~토 오전 11시~오후 6시 (월·일 휴관) | **장소** 피비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6263-2004



전시 <그래도, 괜찮아>

유리의 물성과 조형 기술을 탐구하는 이규비 작가는 <그래도, 괜찮아>에서 드로잉과 유리 조형 작업을 접목했다. 은은한 조명을 활용해 유리의 차가운 느낌 위에 따뜻한 감성을 더하고, 작품의 범위를 전시 공간 전체로 확장했다.

일시 11월 15일(월)~12월 22일(수)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휴관) | **장소** 서리풀휴 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제10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1

10주년을 맞이한 서울국제조각페스타2021의 주제는 변화와 기회이다. 슬로건 '미술은 산업이다' 아래 미술뿐만 아니라 조각 분야와 관련 업계 전반의 도약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모색하는 축제가 되고자 한다.

일시 11월 30일(화)~12월 7일(화)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월·공휴일 휴관) | **장소·관람료**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무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만 5천 원 | **문의** 02-3477-2074



연극 <미스터 보쟁글스>

언제나 탭에 열중한 전설의 탭댄서 빌 보쟁글스 로빈슨의 삶을 들여다본다. 그가 탭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던 이유와 탭에서 찾은 희망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작품이다.

일시 11월 30일(화)~12월 5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6시, 특별공연 수 오후 3시 | **장소** 공간222 | **관람료** 3만원 | **문의** 010-3344-6693



뮤지컬 <달나라 여행 가이드>

0.0001%의 확률로 지구에 소행성이 떨어진다.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한여름은 뉴스를 듣고 지구에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각해진다. 불안한 여름은 스타 우주비행사 문태경을 찾아 캐나다로 향한다.

일시 12월 1일(수)~12일(일) 평일 오후 7시, 주말 오후 2시·7시 (월 휴관) | **장소** 대학로 드림시어터 | **관람료** 3만원 | **문의** 0507-1306-0221



연극 <달래장>

1인 가구수가 전체 가구의 1/3을 차지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집은 안녕한가? <달래장>은 우리들의 집을 순례하며 서로 안부를 묻는 작품이다.

일시 12월 1일(수)~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3시·6시, 일 오후 3시 | **장소** 대학로 아름다운극장 | **관람료** 2만원 | **문의** 070-4412-1526



국립무용단 <홀츨II>

전통을 수련한 국립무용단 중견 단원들이 각자의 춤사위로 재해석한 전통을 독무 형식으로 선보인다. 김은이·김희정·박재순·윤성철·정소연·정현숙 국립무용단원 여섯 명이 무대를 채운다.

일시 12월 3일(금)~4일(토)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 |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 문의 02-2280-4114



연극 <붉은 낙엽>

<붉은 낙엽>은 연출가 이준우와 극단 배다가 제작하고, 작가 김도영이 각색한 연극이다. 2021년 서울연극제 우수상 등을 수상한 <붉은 낙엽>은 평범한 가정이 아동실종사건에 휘말리며 점멸해 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일시 12월 8일(수)~27일(월)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화 휴관) |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1644-2003



판, 소리 내어 읽다-입체 낭독극

<해녀탐정 홍설록>

문장들이 소리꾼의 목소리를 통해 읽히다. <해녀탐정 홍설록>은 한국판 셜록 홈즈, 홍설록의 이야기다. 바다를 벗 삼아 항일운동을 하는 해녀들의 사투가 벌어진다.

일시 12월 8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서울문화문극악당 | 관람료 2만 원 | 문의 02-3210-7001



낭독 콘서트 <크로이체르 소나타>

톨스토이의 소설 <크로이체르 소나타>는 기차에 탄 승객들이 결혼과 부부 생활, 이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한다. 주인공 포즈드니세프의 이야기는 파국을 맞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와 함께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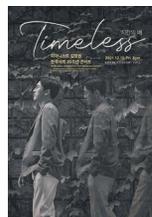
일시 12월 9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7천 원 | 문의 02-3477-2805



뮤지컬 <내가 없는 세상>

세기의 스캔들을 신문사에 제보하며 살아가는 투명인간 M. 이번에는 정치계 특종을 잡으려 정당 사무실에 들어간다. 선거에서 낙마한 정민과 마주치고 M은 보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민은 M을 알아본다.

일시 12월 9일(목)~19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1시·5시, 일 오후 3시 | 장소 피카소 소극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3672-7971



공연 <Timeless-시간의 배>

한국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공연이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게스트로 참여해 함께 연주한다.

일시 12월 10일(금) 오후 8시 | 장소 롯데콘서트홀 | 관람료 R석 11만 원, S석 8만 원, A석 5만 원 | 문의 1544-7744



국악 <짓-사자의 언어>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 ‘사자’가 있다. 생과 사를 이야기하는 화자로 소리꾼 추다혜는 ‘사자’를 택했다. 태어나 죽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마주하고, 받아들이 것인가.

일시 12월 10일(금)~11일(토) 금 오후 8시, 토 오후 5시 | **장소**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2261-0500



연극 <향수>

담임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아빠는 아들이 며칠째 학교에 오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범생이던 아들의 갑작스러운 무단결석 소식.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픈 걸까? 불안한 마음을 품고 아들의 집을 찾아가지만, 그곳에는 태연한 아들이 있다. 아빠가 쓰는 향수는 뭐야?

일시 12월 10일(금)~19일(일) 화~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 | **장소** 스튜디오76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10-9567-4367



2021 뉴 아트마켓 <예술거래소 포럼>

2021년 예술거래소 포럼에서는 국내외 아트마켓 동향, 그리고 예술 거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더듬어본다. 각 분야 전문가가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일시 12월 10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예술청 1층 올라온지, 온라인 송출 병행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58-2175



서초음악꿈나무 악기지원사업 성과 발표회 <꿈나무 음악회>

서초문화재단은 외부에서 기부받은 악기를 서초구 청소년에게 전달하고 악기를 다루는 교육을 진행했다. 작음 음악회를 열어 연습 결과를 선보인다.

일시 12월 11일(토) 오후 4시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무료(사전 예약) | **문의** 02-3474-2911



공연 <크리스마스 지브리 탱고>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가 이끄는 탱고 밴드, 아르헨티나에서 내한한 탱고 댄서들이 무대에 오른다. 탱고풍 크리스마스 캐럴부터 스튜디오 지브리, 디즈니의 OST와 정통 탱고까지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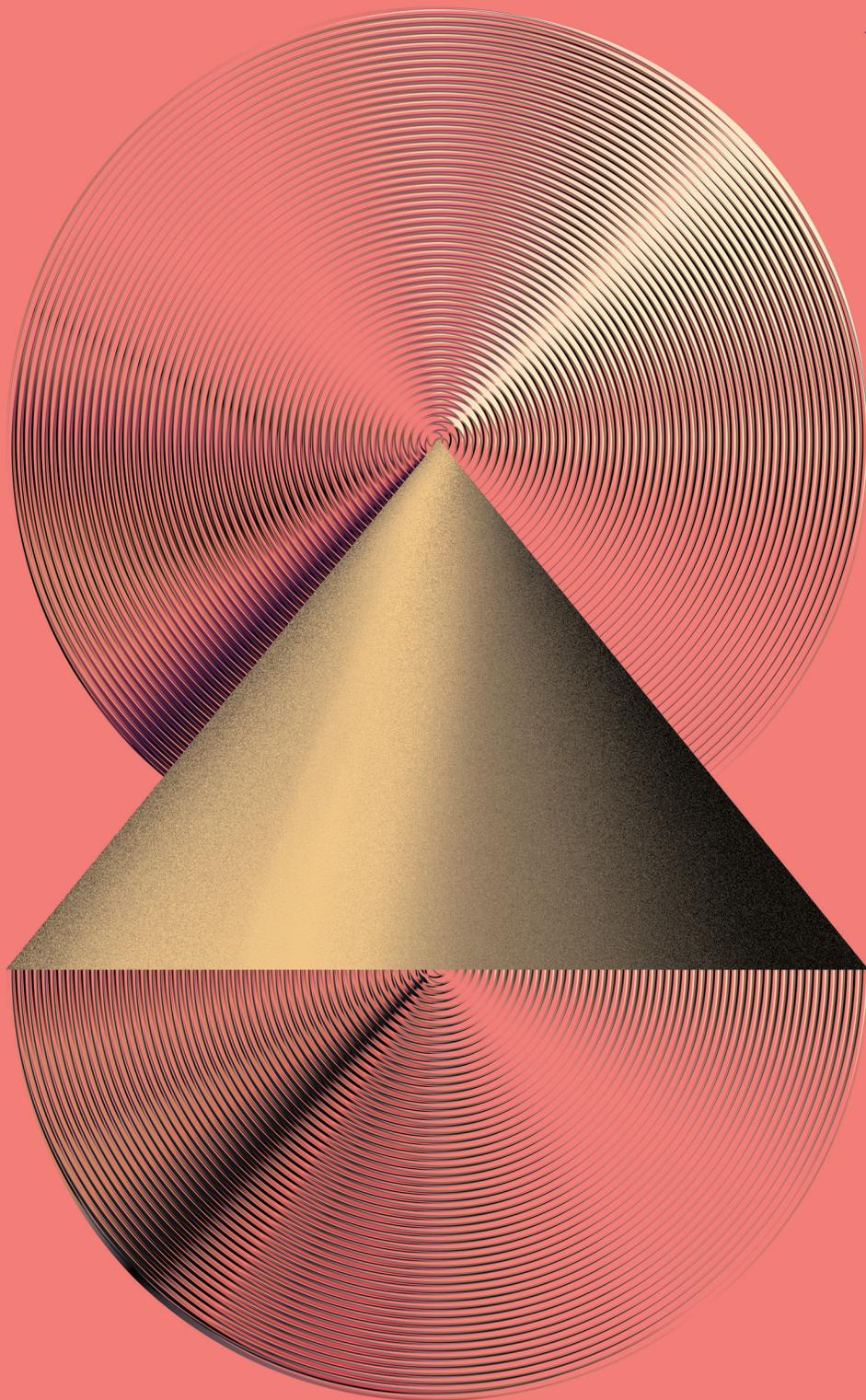
일시 12월 11일(토) 오후 5시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 **문의** 02-2658-3546



연극 <로테르담>

<로테르담>은 성정체성과 관계에 대해 섬세하고 위트 넘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위해 고심 중인 엘리스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남몰래 고민 중인 피오나의 성장담을 담고 있다.

일시 12월 14일(화)~31일(금)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 (월 휴관) | **장소**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3668-0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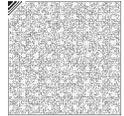


2
0
2
2

서울
예술 | 1 차
지원 | 공모

2021. 11.23 TUE
- 12.10 FRI 18:00

www.sfac.or.kr 02.3290.7473



공연 <모던 걸 나, 해석>

결혼 후 서울에서 유화 개인전을 열며 화가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나해석. 임신한 몸으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으며 작품 활동에 한계를 느꼈던 그녀는 남편 김우영과 세계 일주를 떠난다. 귀국 후, 최린과의 염문으로 김우영과 이혼하면서 빈손으로 집을 떠나야 했던 그녀는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비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일시 12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CJ아지트 광흥창 | **관람료** 3만원 | 문의 010-8218-7358



연극 <데미안 비더게부르트>

보수적이고 엄격한 신학교 헤일리히의 수상한 교리심화반 '캠프'가 배경이다. 서로 다른 인물들이 자아실현과 주변 환경 사이에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이야기를 그린다.

일시 12월 17일(금), 21(화)~24일(금) 오후 7시 30분, 18일(토)~19일(일) 오후 2시~6시,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 **관람료** 3만원 | **문의** 02-440-0500



전시 <콰야: 태도에 대하여>

콰야는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일상이 담긴 보통의 날들'에 주목한다. 몽환적인 표정을 띤 인물을 통해 보는 이의 사유를 자극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거슬러 오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작업을 선보인다.

일시 12월 18일(토)~2022년 1월 15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 (월·일·공휴일 휴관) | **장소** 이길이구 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6203-2015



전시 <DECAFFEINATION>

전시 제목인 'DECAFFEINATION'은 커피콩과 코코아, 차 잎, 그리고 카페인을 함유하는 물질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뜻한다. 최진저 작가는 보편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세상에서 잠이 잘 오는 전시를 만들고자 한다.

일시 12월 18일(토)~30일(목)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8시 | **장소** 하우스서울 | **관람료** 무료 | **문의** 02-6000-6722



2021 공동창작워크숍 결과 공유회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서울무용센터·신당창작아케이드·잠실창작스튜디오의 전·현 입주예술가 14명이 '지구와 예술'을 주제로 지난 1년간 함께한 공동창작워크숍 과정을 돌아보고 2022년 작업 계획을 공유한다. 2022년 5월 결과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일시 12월 20일(월) 오후 3시~6시 | **장소**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관람료** 무료 | **문의** 02-423-6603



창동악가무

<HEY STRING: For humans>

'Hey String'은 김지효·박지현·오지현 3인의 가야금 연주자로 구성된 팀이다. 다양한 음악을 엮어 독창적이고 도전적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하고자 한다. 공연은 노래·음악·춤으로 어우러진다.

일시 12월 23일(목) 오후 8시 | **장소** 플랫폼창동61 레드박스 | **관람료** 1만 5천원 | **문의** 02-933-0565

예술교육의 동시대 이슈들을 현장의 감각으로 조망하는

2021서울예술교육
라운드테이블

변화하는 예술교육 참여

유아예술교육 콜로키움
놀이하는 예술가들:
유아, 예술가, 부모

11.17. Wed
14:00-16:00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성과 공유회
신종년: 문화예술로 바라보기

11.24. Wed
13:00-15:00

지역을 잇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예술교육TA 성과 공유회
일상에서 숨 쉬는 예술교육

11.26. Fri
14:00-16:30

지역문화예술교육 콜로키움
지역과 함께 나아가는 문화예술교육

12.08. Wed
14:00-16:30

TA 월간 웨비나
동시대 예술교육의 확장: 실천:
00으로 존재하는 예술교육가

11.25. Thu
14:00-16:00

예술교육실천가와 동시대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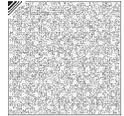
예술교육공간 라운드테이블
과정의 기록, 기록의 과정

12.10. Fri
13:00-15:00

예술교육공간 라운드테이블

예술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 <스팍TV>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대학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접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받았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게임과 예술이 뒤섞이다'입니다. 평소에 게임을 즐겨 했는데 매거진을 보고나니 음악·그림·소설·미디어아트 등 많은 것이 예술로 이뤄져 있음을 깨닫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생활예술' (?)에 대해 다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간 정기구독이 된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

※ [문화+서울]은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김현 님(서울시 강북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받았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게임과 예술이 뒤섞이다'입니다. 평소에 게임을 즐겨 했는데 매거진을 보고나니 음악·그림·소설·미디어아트 등 많은 것이 예술로 이뤄져 있음을 깨닫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생활예술' (?)에 대해 다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년간 정기구독이 된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편집 후기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여전히 당연한 건 없었던 21년에도 어김없이 12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12월부터는 모두가 덜 아프고 더 재밌길. (넷플릭스 <신세계로부터> 많관부 ☺)

홍지형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아니 벌써, 어느새, 또다시 12월입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올해도 내내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2021년 무사히 저물길 바랍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건강하다, 즐겁다, 함께하다, 소중하다, 좋다, 간직하다. 12월호에 쓰인 단어입니다.

장영수 객원 기자



박채원 <Grain Series with Scratches (Stem)>

도자 | 90×90×240mm | 2021